

Part Ⅰ :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
Part Ⅱ :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Part Ⅲ : 기억의 현재

이래유물 展

의정부 극복 D.N.A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정부문화원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Part Ⅰ :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
Part Ⅱ :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Part Ⅲ : 기억의 현재

이래유물 展

의정부 극복 D.N.A

2017. 10. 20~10. 26

발간사

문화원은 그동안 지역의 역사, 전통, 인물에 대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전시되어 있는 모든 것은 의정부의 과거와 현재를 충실하게 분석하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미래유물전〉은 지방문화원이 과거의 것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역은 항상 살아 숨 쉬고 있는 역동적인 생활의 현장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고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재발견!' 이것이 미래유물전이 지방문화원에게 발신하는 주파수입니다.

기획전시 〈미래유물전〉은 어제를 보고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명명되는 개념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져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 보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의 신비와 과거의 신화가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자유를 향한 개인의 신경망인 현재뿐이다."
라고 선언하듯이, 미래는 곧 지금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전시를 통해 문화원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정부 골목골목 다니면서 지역의 '현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전시는 의정부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정부의 미래는 의정부 시민들이, 그리고 의정부문화원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시작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의정부문화원에서 함께 열어가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전시를 준비해주신 의정부문화원 조수기 원장님과 임직원,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전시가 의정부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Contents

발간사 • 2

미래유물전 in 의정부 • 4

전시장 배치도 • 8

의정부의 극복 D.N.A • 10

제1전시장_묻어둔 기억, 발굴하다 • 22

제2전시장_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 46

제3전시장_기억의 현재 • 58

인터뷰 • 70

시민소감(윤영옥) • 89

홍보물 디자인컨셉 • 99

사진으로 보는 미래유물전 • 102

전시회를 마치며 • 116

미래유물전 in 의정부

2017 미래유물전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경기도가 겪어 온 유구한 역사에서 가치 있는 유물의 유실이 안타까웠던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유·무형의 유산에 대한 발견과 선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경기도 내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유산을 발견하고 전시하여 우리들의 유의미한 유산의 의미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깊이 생각해보고, 새로운 유·무형의 유산을 축적하는 여정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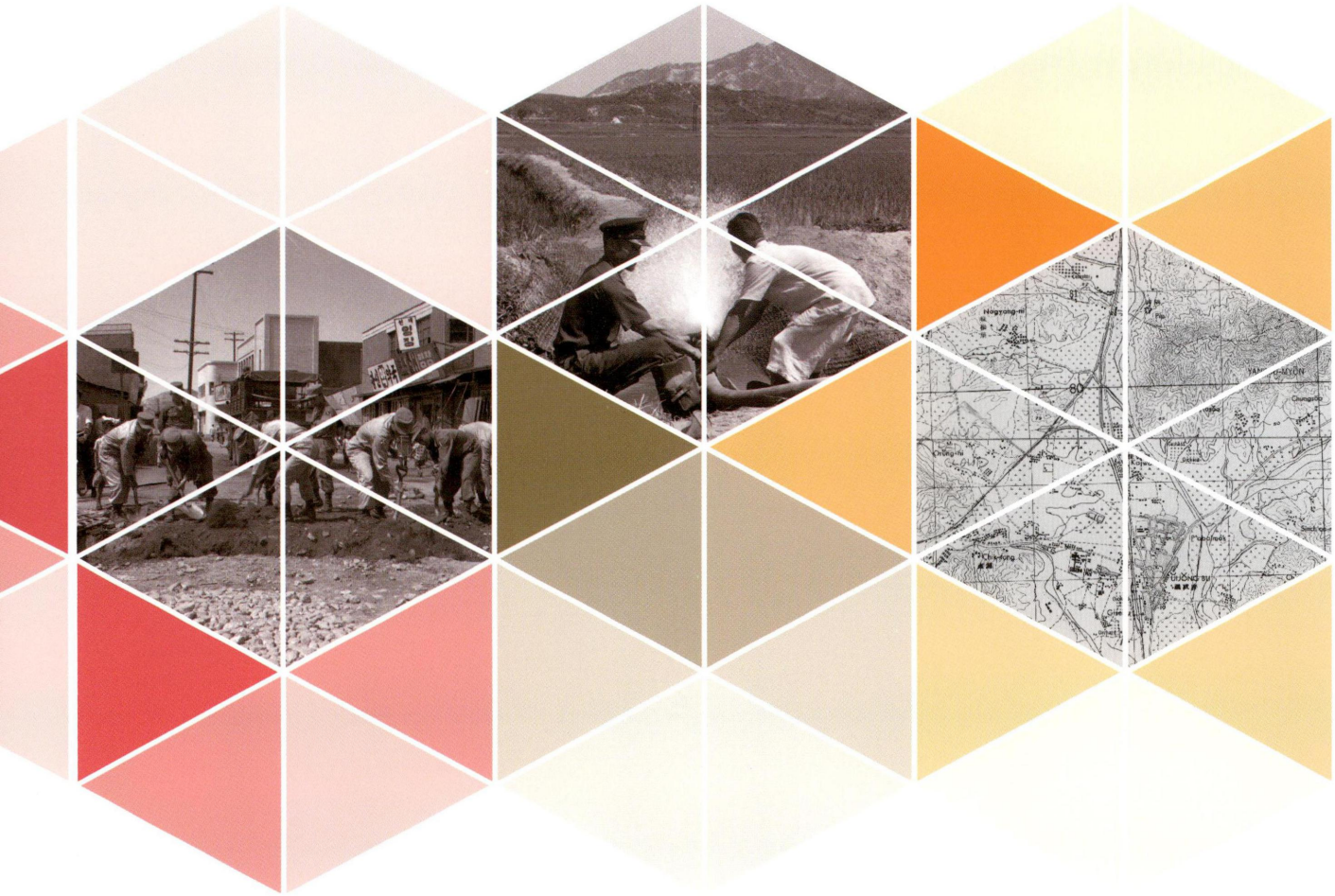


2017 미래유물전_극복 D.N.A는

고통과 혼란의 근현대사에서 경기북부 최초의 '시승격'이란 쾌거, 혼란에서 안정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보여 준 의정부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했다.

D.N.A는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담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형질로 존재의 계속성과 관계한다.

미래유물전_극복 D.N.A는 의정부의 오늘을 있도록 만든 어른 세대의 '힘'은 의정부의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유전 정보로 전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른 세대의 힘을 '극복 D.N.A'로 명명하고 그것은 무엇이며 그 구성은 무엇인지 규정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내제된 극복 D.N.A를 자각하고 그들의 어른 세대에 대한 존경과 의정부 시민으로서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되기를 희망하는 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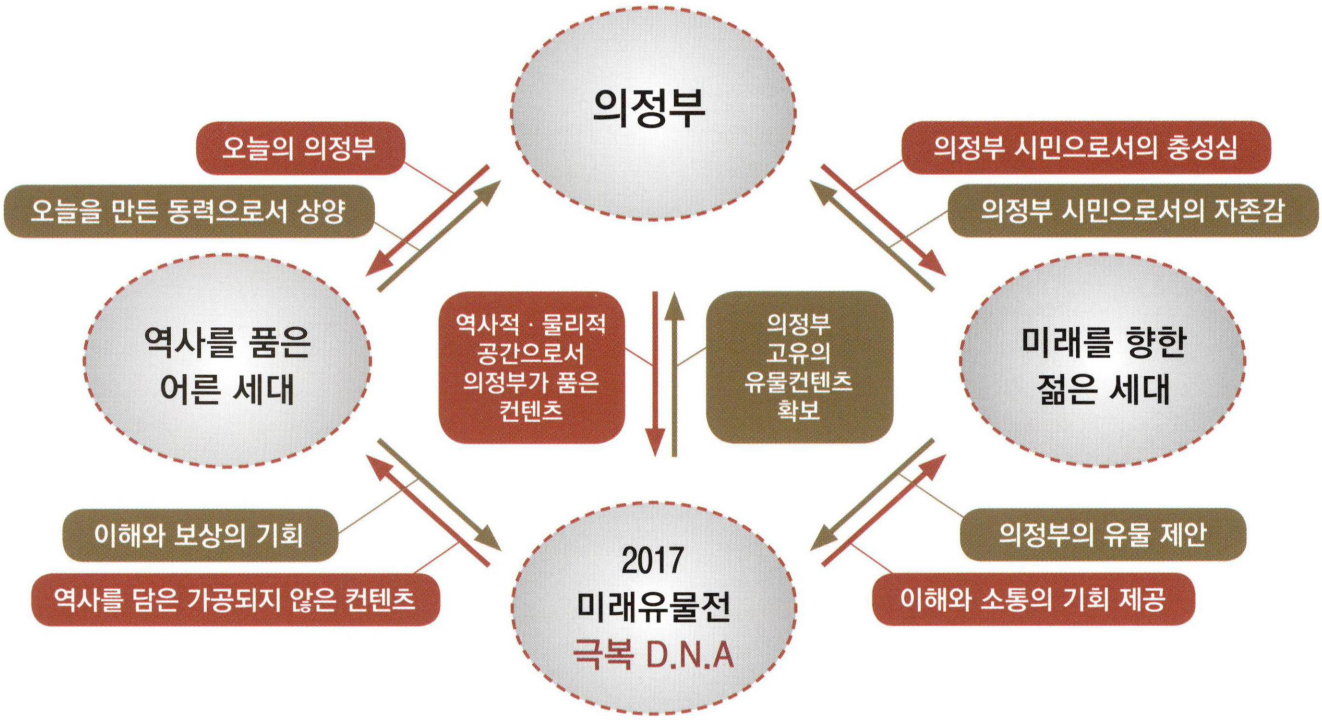


'극복 D.N.A'를 찾아보고자 의도된
올해의 〈2017 미래유물전〉은 의정부에 대한 기억의 발굴을 통하여,
그 장소성이 가지고 있는 발전적 요소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우리 근대 역사 속에 남아 있는 한국전쟁이라는 묵직한 기억의 뿌리를 건강하게 가꾸고
극복해 가고 있는 의정부라는 삶터를 '변즉통 통즉구'라는 측면에서도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의정부는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가 오롯이 스며든 장소성(場所性)을 지니며,
그 위에 생겨난 식문화를 토대로 또 다른 범주의 한국 음식 문화를 가꾸어 낸 곳이다.
더불어 지역 문화의 특성을 되살려 그곳만의 시각 문화를 일구어 나가고 있다.
미군이 상주했던 지역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녹색도시 푸른 의정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언하는 등
여러가지 논의와 검토를 활성화시키고, 그간 '미군 기지의 도시'로 굳어진
의정부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활동에 정성을 쏟는 것 또한 이런 맥락의 하나일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정부의 근대 역사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했던 미군 기지의 이미지는
점차 옅어져 갈 것이며, 그 옛 터를 지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았던 기지촌과
그곳에서 흘러나온 식재료와 부대찌개를 언급하고 그것을 맛보며 풍요를 꿈꾸던 시절을 되새길 것이다.
기지촌과 부대찌개가 마냥 밝은 기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기억을 애써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의정부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들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되어 의정부와 함께할 것이다.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속에 형성된 의정부의 맥락을 읽어들여, 미처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사실들 속에서
희망과 낙관의 단서를 찾고, 그 좋은 부분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사항들은 개선하고 보완한다면
의정부 건설에 독특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정부시와 시민이 합심하여 지금까지 구축되어진 도시공간을 재편성함에 있어서
고유의 장소성을 더욱 풍성히 창출해 낸다면, 더불어 의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의정부시를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합심한다면,
의정부시민들의 정주성은 강화되고 도시의 긍정적인 정체성 또한 자연히 확보될 것이다.
또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생활인으로서의 의정부에 대한 자부심은 절로 우러날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돌아보는 정감있는 생활공간으로의 재탄생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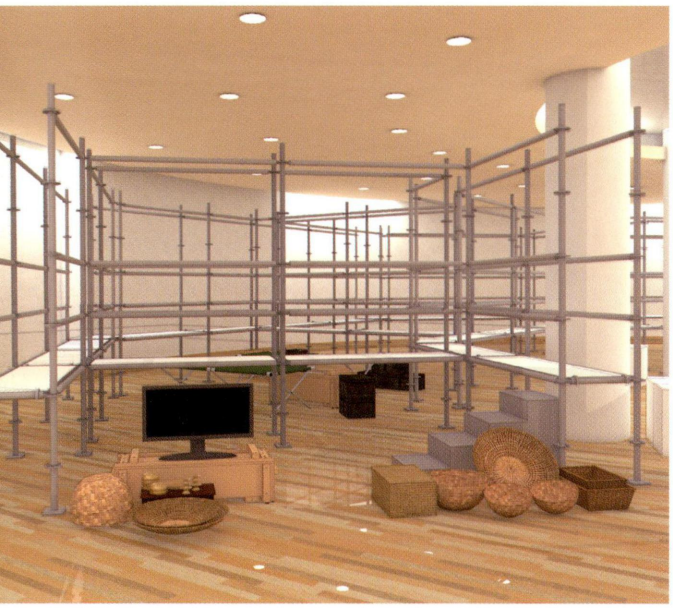

의정부
오늘의 의정부
오늘을 만든 동력으로서 상양
의정부 시민으로서의 충성심
의정부 시민으로서의 자존감
역사를 품은
어른 세대
역사적 · 물리적
공간으로서
의정부가 품은
컨텐츠
의정부
고유의
유물컨텐츠
확보
미래를 향한
젊은 세대
이해와 보상의 기회
역사를 담은 가공되지 않은 컨텐츠
2017
미래유물전
극복 D.N.A
의정부의 유물 제안
이해와 소통의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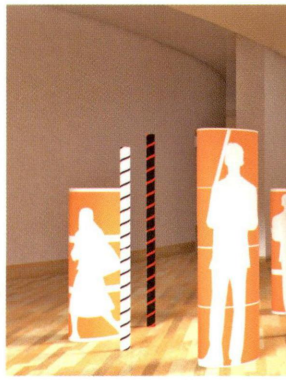
전시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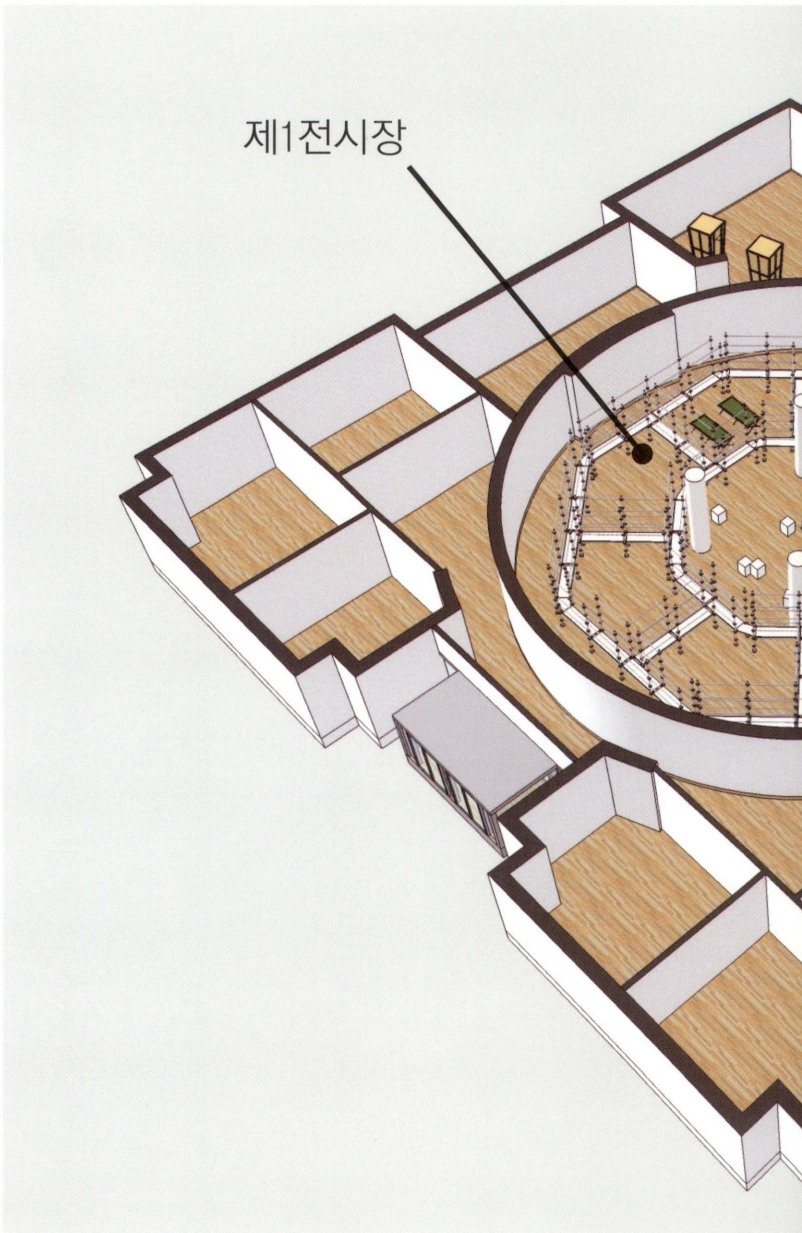
제1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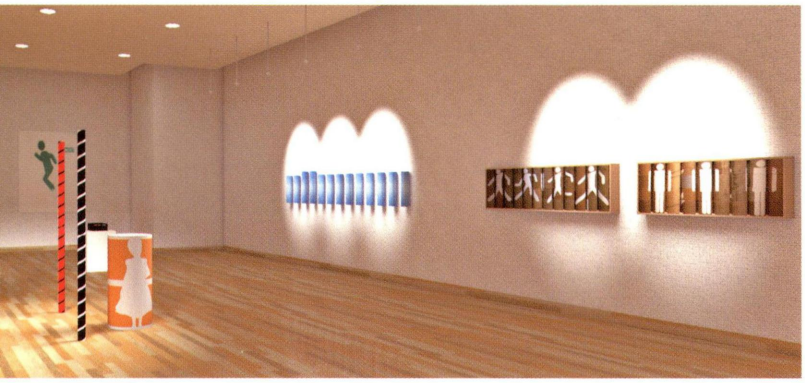




제2전시장▶







▼제3전시장







의정부의 극복 D.N.A

의정부문화원장 조 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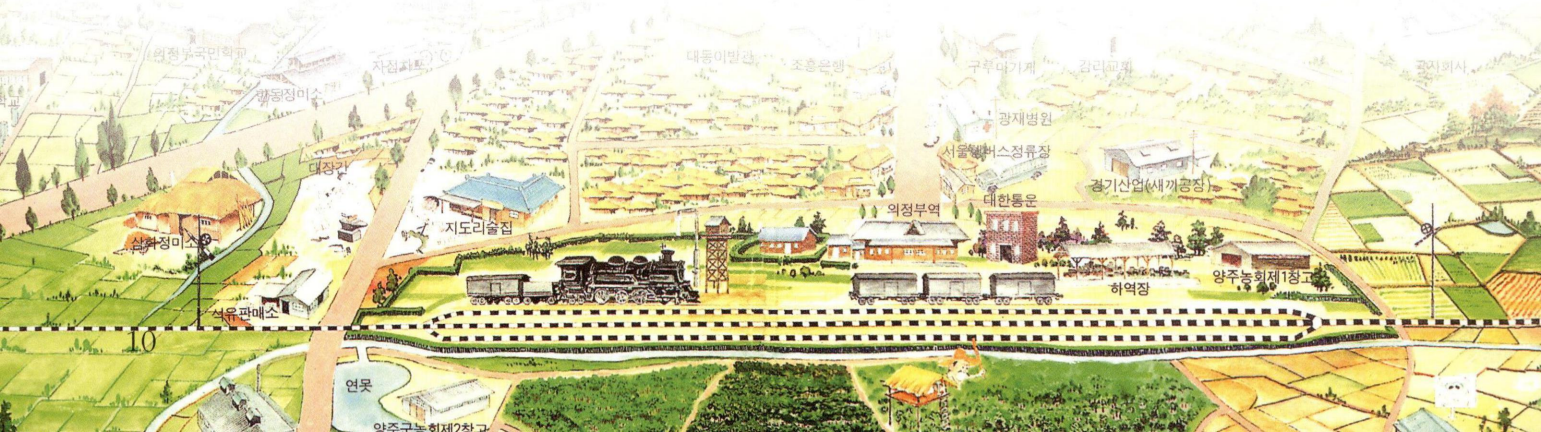
지정학적 여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력다툼을 하던 삼국시대부터 늘 세 나라의 세력 확장과 부족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격전지가 되고, 세력의 각축장에 됨에 따라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던 군사 요충지가 되었던 곳이다.

조선 초기에는 태조 이성계와 조선건국의 설화가 전해진 것처럼 태조 이성계의 아들 형제간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두차례의 왕자난으로 이성계가 함흥으로 낙향하여 칩거하다가 무학대사의 설득으로 태조가 왕궁으로 환궁하던 길에 의정부의 전좌마을에서 아들인 태종과 만나 화해하게 되었다고 하니 이곳 의정부가 갈등과 권력투쟁의 종점이자 화해의 지역인 역사도 있었던 곳이다.

또한 조선 초기에 고려의 실학자이자 충신인 조견, 원선 등은 고려의 멸망과 역성혁명으로 왕권을 잡는 태조 이성계에 대한 불만으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이곳 의정부 민락동에 은거 하면서 서원을 짓고 후학을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에 전력했던 연고로 지금도 삼귀마을 이름이 전해지고 "송산사" 라는 서원터와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조선이 1394(태조3년) 10월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후에는 의정부가 서울(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개성을 비롯한 북쪽으로 가는 길목의 역할을 하면서 한양(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역이 됨으로 중앙정부의 왕을 비롯한 왕족들의 산양터와 군마(軍馬)의 사육장 역할도 하였고 왕족과 귀족의 무덤과 휴양시설이 늘어나기도 했다.





◀김구선생필적암각문

송산사지 ▶



1910.8 일본의 국권찬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가 국토를 강점한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의 위성지역인 관계로 일제가 경원선을 부설하면서 1912년 의정부역을 설치하고 중국침략을 위한 전쟁물자 수송과 북쪽에서 채광된 광물과 곡물을 수송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하다보니 일제의 군화 발에 밟이고 농산물과 문화재를 수탈 당하는 재난의 피해지역이 되었다.

의정부의 지형이 동쪽에 수락산, 서쪽에 원도봉산이 위치하고, 북쪽에 천보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가 되다보니 전쟁의 격전지가 여러번 되기도 했지만 도시를 둘러싼 산을 이용하여 적군을 방어하고 일시적인 피난처로도 활용 되었던 역사적 설화도 전해지고 있다.

의정부시 원도봉산 회룡골에 위치한 회룡사절 옆에는 백범김구선생님이 한양에서 명성왕후의 시해사건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헌병장교를 죽이고 도피 중 은거 했던 천연 석굴이 있는 데 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1949년"戊子仲秋遊此金九"란 암각문을 새겨 놓은 곳도 있다.

역사와 인물

또한 조선조 인조 때 실학자 박세당(호:서계)은 성균관 홍문관 등 관직 벼슬을 하다가 40세에 관직을 물러나 오늘날 의정부시 장암동에 내려와 논밭을 갈고 글을 쓰며 은거 하면서 "색경","사변록", "시경" 등 책을 쓰면서 "노강서원"에서 실학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그의 생가인 사랑채와 묘, 그리고 그가 주경야독하며 자연과 벗하던 정자터가 흔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조선조 인조때(인조14년) 청나라의 침공(1636년)으로 비롯된 병자호란에서 인조임금이 청나라왕에게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 서계박세당 사랑채

▶ 북관대첩비

병자호란으로 패망한 조선에게 청나라는 보물과 문화재 수탈은 물론 노역에 필요한 청장년의 압송과 부녀자를 전승자의 전리품처럼 끌고 갔다.
또한 인조에게 공주를 청나라왕과 볼모로 강제 혼인케 요구 했다.
왕은 청혼시킬 공주가 없어서 왕족인 금림군의 딸을 의순공주라 명명하여 청나라 주왕과 혼인케 했다. 청나라에 가서 강제로 결혼했다 돌아온 의순공주는 의정부 금오동에서 은거 하다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함에 따라 초라한 무덤만 남아있다.

다만 의정부문화원에서는 국가위기에 임금의 명을 따르고 부모의 뜻에 따라 청나라로 가서 강제 결혼했던 의순공주의 충효정신을 전승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난관극복의 DNA를 체질화하기 위한 음악극, 무용, 마당놀이, 정신교육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92년(선조25년) 왜적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금이 의주까지 피난하고 왕세자인 임해군, 순화군 까지 함경도 회령으로 피신하였을 때 반란민이 두 왕자와 호위병을 왜장에게 넘기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정문부장군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의기투합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정문부장군의 의병은 1592년 9월부터 12월까지 명천, 길주, 장덕산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관북지방을 완전히 수복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 승전을 기록한 북관대첩비를 일제강점기때 일제가 일본으로 옮겨갔다가 2005년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2006년 본래 위치돼 있던 북한으로 전달하고 우리 의정부에는 복사품이 의정부 용현동에 소재한 정문부장군의 묘역에 세워져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등 왜적이 침입한 7년간의 전쟁으로 조선은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전국의 경지면적이 69%나 감소 되었고, 수십만명의 사상자와 곡물과 가축등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각 지방의 주요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소실되고 왜적이 약탈해 갔는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비롯한 주요 문화재도 이때 전화로 소실 됐다.







▲ 의순공주 뮤지컬
◀ 정주당놀이

7년간 왜란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 경기북부지방에서는 임진강과 행주산성 등지에서 왜군과 관군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며 특히 행주산성에서는 도원수 권율장군이 지휘하는 관군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왜군의 현대무기인 총포에 맞서 부녀자들이 치맛자락에 돌을 나르고 남자들이 돌을 무기삼아 왜군을 격퇴하는 군 · 관 · 민 총력전을 전개 함으로서 행주대첩에서 승리하였고 부녀자들이 긴치마를 잘라 돌을 나른 관계로 "행주치마"란 명칭도 생겼다.

한국전쟁의 격전지

1950.6.25. 일요일 새벽 많은 국민들이 고이 잠든 틈에 북한공산괴뢰도당들은 소련제 탱크와 미그전투기를 앞세우고 불법 남침을 감행 했다.

한반도의 38선으로부터 40여km에 위치한 의정부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관문이자 국도3호선이 관통하는 군사요충지 이기 때문에 북한군은 강원도 지방에 주둔했던 북한 정규군이 T34탱크



◀김풍익중령 전적비

6대를 앞세우고 포천을 지나 의정부와 포천경계인 축석령까지 진격해 왔다.
육군사관학교 7기생으로 포병소령 이었던 김풍익 지대장은 동료포병 6명과 함께 105m/m 야포를 메고 적탱크 앞 50m까지 접근하여 적탱크를 공격했다.
한대가 파괴되자 적은 부서진 탱크를 길가로 밀어내고 돌파를 시도 했다. 김풍익소령 일행은 105m/m 포탄을 안고 적 탱크에 뛰어들어 적 탱크 3대를 파괴 했다.

진격로가 부서진탱크에 막혀 적군은 이곳 축석령 고개에서 3일을 멈춰서서 적군이 서울을 점령하려던 계획이 3일간이나 지연되게 하는 전과를 김풍익소령과 그 동료가 산화로 막았다.
전쟁이 끝나고 정부는 김풍익 소령을 중령으로 추서 포상하고 그가 젊음을 받쳐 산화한 축석령에 추모동상을 건립했다.

국가와 민족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때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조국에 목숨받친 김풍익 중령의 결사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959.11월 한국전쟁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중공군은 압록강, 두만강, 전투를 필두로 국군과 유엔군을 밀고 내려와 1951.1.4.경 연천, 철원을 돌파하고 서울까지 점령하였고 우리지역은 다시 적군과 아군의 치열한 격전지로 변해 큰 피해를 당한바였다.
3년간의 전쟁터가 된 의정부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컸지만 정부가 보관하던 호적부, 등기원부, 재산관리대장, 지적도원부 등 주요 정부보관 문서까지 소실됨에 따라 1980년대 까지 경기북부지역은 가정의 내력과 친족관계, 재산의 소유자등이 소실되어 토지 복구로 인한 분쟁과 사건이 분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한 관계로 남, 북이 38도선 근방에 155마일(248km)의 휴전선(DMZ)이 설정됨에 따라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전쟁으로 피해도 입었지만 1953.7월 휴전 후에도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수도권 보호지역 설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제약은 물론 지역발전의 제한요인이되어 인한 피해 또한 큰 지역이 되었다.

난관극복 DNA

지리적 위치로 인해 군사요충지가 됨에 따라 한국역사 이래 삼국시대부터 1950년대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의 격전지가 겪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지만 의정부지역에 살았거나 활동했거나 또는 이곳에 잠든 영령들의 관련된 역사와 설화에 의하면 묘하게도 송산사, 노강서원, 정주당 묘(의순공주묘), 김구선생 암각문, 그리고 김풍익 중령의 전적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충효정신"이 발로(근간)되었고, 그분들의 혼과 넋이 지켜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전화 속에서도 의정부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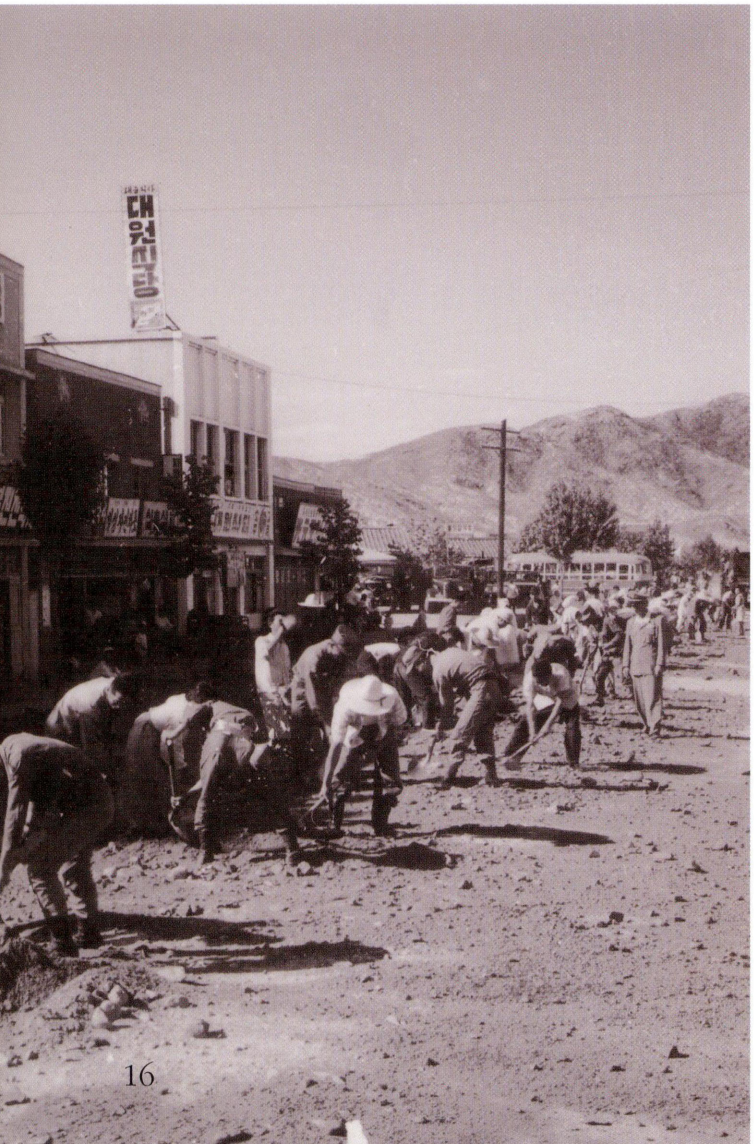
향후과제

향후에는 통일의 관문으로 남북의 중심축인 의정부가 산업 · 경재 · 상업 · 복지 · 문화의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군사요충지와 지역역발전 저해 요소인 개발제한구역 등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지정학적 난관과 지역발전의 저해여건을 남북교류협력의 모델도시로 설계하고 준비해 나감으로써 난관극복의 DNA를 품고 도약하는 의정부가 되어야 하겠다.



6군단 장병 의정부 도로 공사 동원(1961)▶







▲ 녹양동뒷골길

◀ 6군단 장병 의정부 도로 공사





◀ 6군단 장병 의정부 도로 공사 동원(1961)

▼ 의정부-포천간 도로확장공사(1975)





판자촌집 ▶



의정부-포천간 도로확장공사(1975) ▼







◀ 하드팔던 시절



◀ 의정부장수목장(1963)







▲ 전예용 건설부장관 의정부, 포천, 진천면 수해지구 시찰(1964)





◀ 1958년 극장가

의정부 전신전화국 개국식▶





◀육군단 장병 의정부 도로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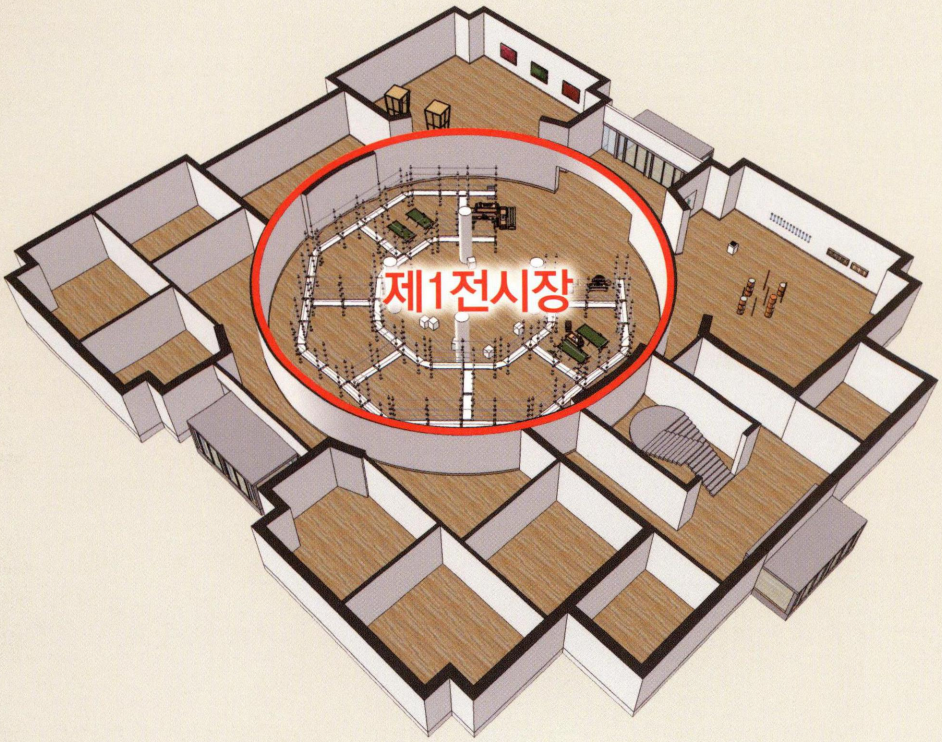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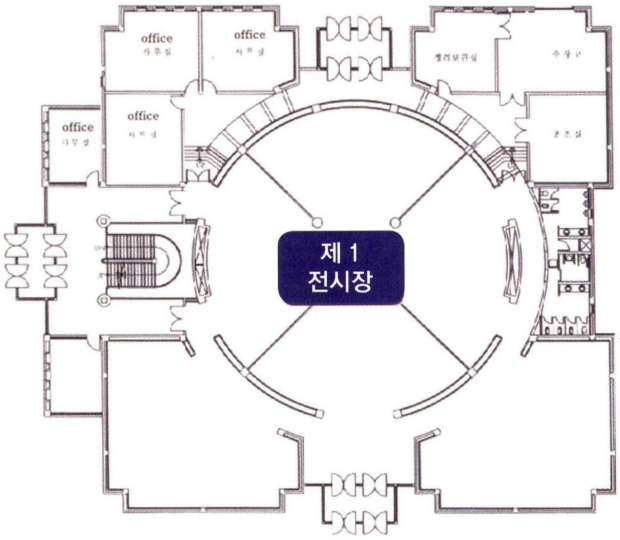
1968년 미군모심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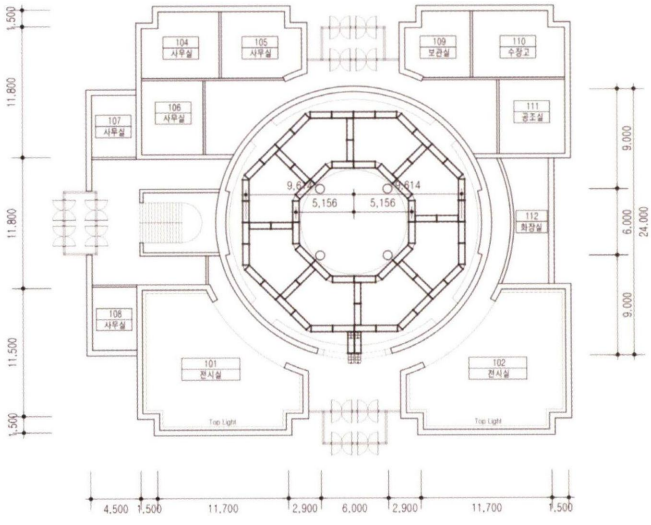


◀1970년시민의날

제1전시장


제1전시장


office
office
office
office
제 1
전시장


104
사무실
105
사무실
109
보관실
110
수장고
107
사무실
106
사무실
111
공조실
112
화장실
108
사무실
101
전시실
102
전시실
Top Light
Top Light
5,156
5,156
11,800
11,800
11,500
1,500
1,500
9,000
6,000
9,000
24,000
4,500
1,500
11,700
2,900
6,000
2,900
11,700
1,500

[Part Ⅰ :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

과거를 담은 사물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여
어른 세대가 겪은 그들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Part Ⅰ] 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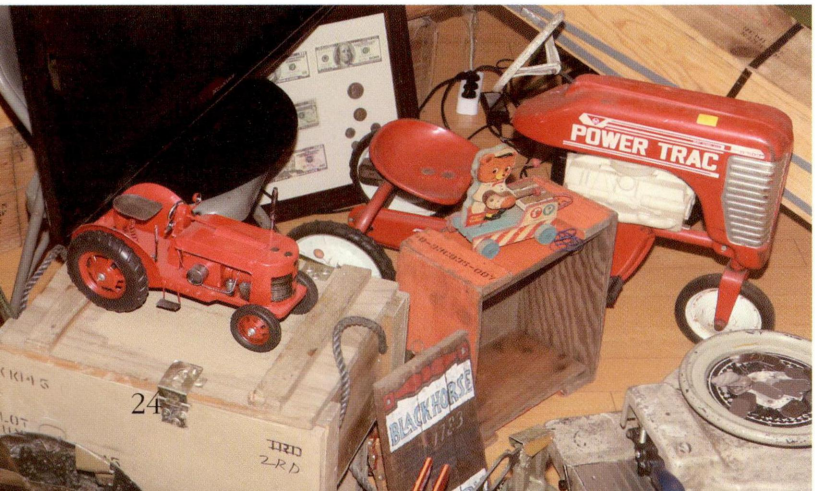
전쟁 관련 사물들을 문화재 발굴의 현장처럼 배치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과거를 함께 발굴하는 과정으로 초대한다.



제1전시장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

1구역







첫 번째 구역은 '장난감'을 전시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황은 평화의 시기라는 쉬운 등식으로 접근했으며, 어린 아이라면 누구나 '소망' 나아가 '욕망'하게 될 빨간 자전거, 자동차 등을 전시하고 '우리들의 좋은 날日, 좋은 시時'라는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텔레비전을 통해 반복 상영했다.



2구역



두 번째 구역은 폭력, 살인, 죽음을 연상할 수 있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물, 무기들을 전시했으며, 실제 전쟁터 같은 긴장감을 표현했다. 통신장비들, 방탄용 철모, 방독면, 미국국기, 폭발물 주의 판, 연발총알 무더기, 크고 작은 폭발물 함, 작전용 발전기, 그리고 이름 모를 전쟁 용품들.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눈앞에 있다니,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선다.
당시 군인들이 싸웠던 흔적들인 전시물을 보는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CAUTION
WET FLOOR
EXPLOSIVES
CLASS
Dräger


EXPLOSIVES
CAUTION
WET FLOOR



3구역







세 번째 구역은 새벽의 갑작스런 폭음과 함께 시작된 6 · 25로 당황했던 우리 나라에 참전국들이 보내 온 풍부한 전쟁 물자와 참전 군인들을 연상할 수 있는 국제 우편 박스 등 전쟁 유물을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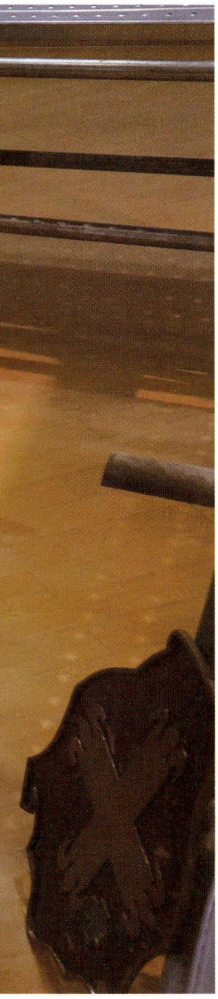
4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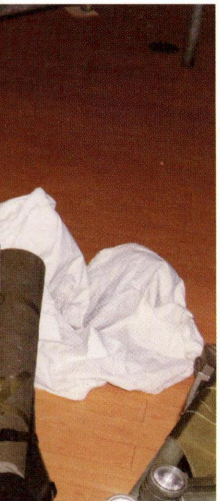
네 번째 구역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는 전쟁에서 삶과 죽음으로 갈라지는 마지막 공간, 야전 병원을 연출하고 생명의 상징인 '물'을 담는 '수통'을 곳곳에 전시했다. 특히 이명수 소장가의 수통 소장품들 가운데 중공군의 수통이 있어 아군의 수통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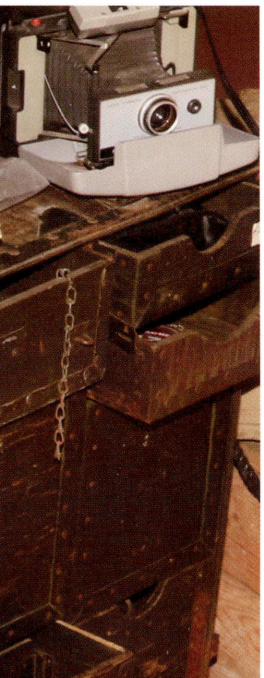
5구역











다섯 번째 구역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략을 검토하고, 전술을 세우고, 명령하는 전쟁 지휘본부를 연출하여 그 안에서 시간을 다투는 '긴박감'과 '고민' 그리고 '압박감'을 연상시키는 담배와 재떨이, 빗겨 놓인 무전기, 널브러진 서류들을 전시했다.

6구역







여섯 번째 구역에는 전쟁에서도 어김없이 찾아 오는 허기를 채워주는 사물들을 전시했다. 공포와 잔인함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품위도 지켜낼 수 없는 전쟁과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배고픔과의 대비에서 살고자 죽이는 전쟁의 비애와 허무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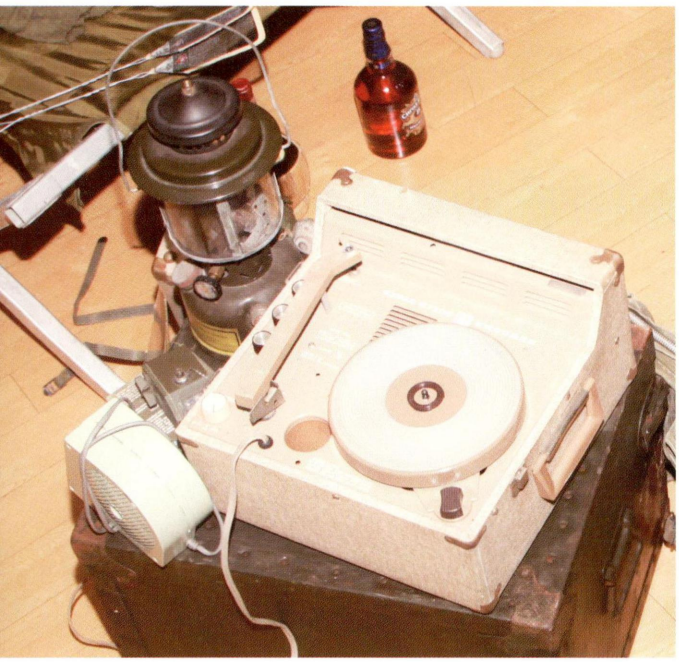
7구역



일곱 번째 구역에는 사병들의 막사를 연출하여 일상이 파괴되는 전쟁에서도 배고픔, 졸음 등과 같은 일상이 진행되는 역설의 공간을 만들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취미와 관련된 전축과 음반 그리고 라디오 등도 함께 전시하여 전쟁에 매몰된 개인의 부재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 취향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안락함을 연상시켜 전쟁이 마침내 끝나가고 평화의 시기가 오고있다는 단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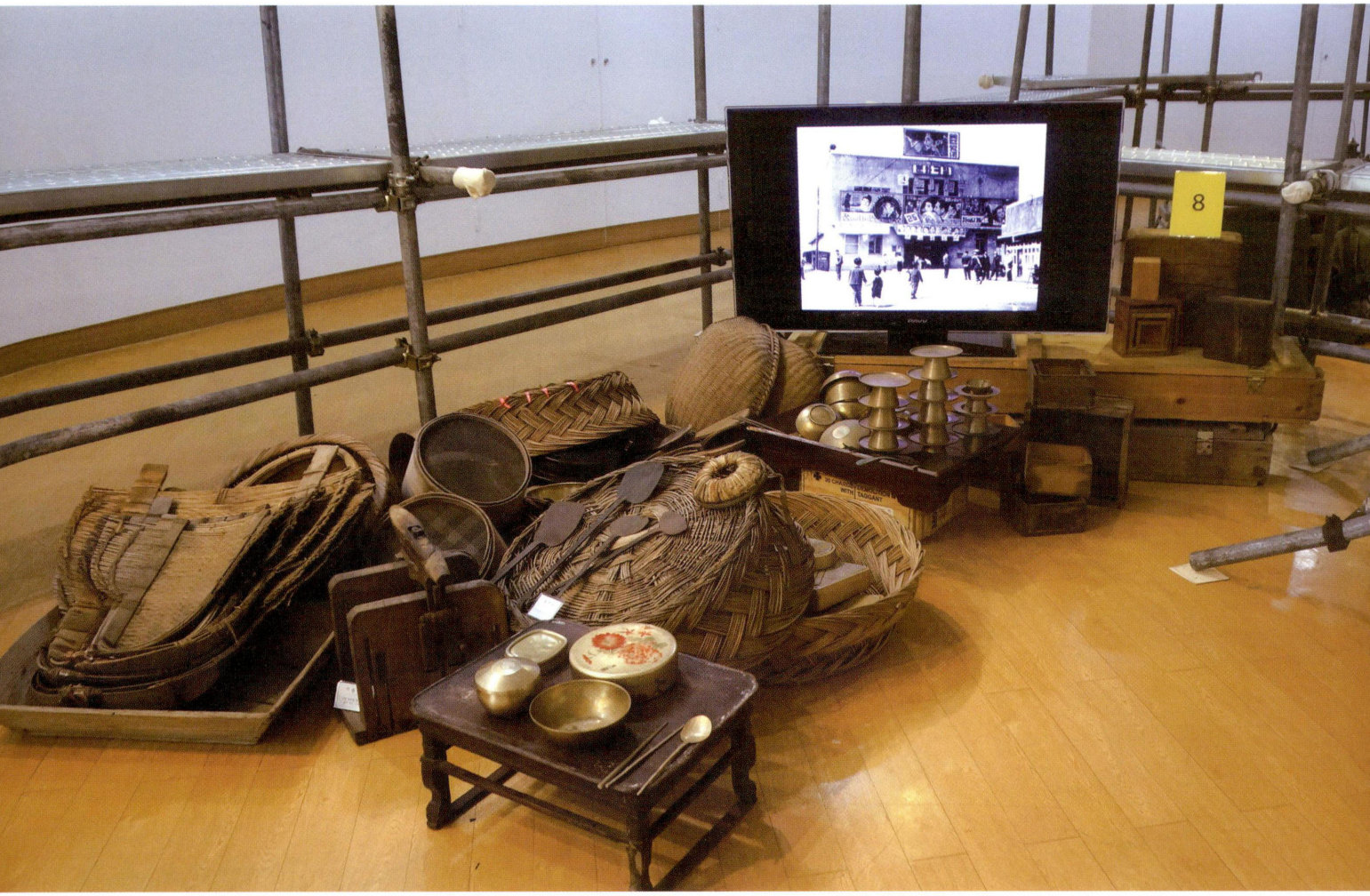

NYC







8구역 50~60년전 사용했던 가정용품







여덟 번째 전시에서는 전쟁 후 피폐화된 경기 북부 특히 의정부에서 손실된 가치 있는 많은 유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한 의정부문화원의 생활 유물 소장품과 오늘 날의 발전된 의정부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의정부'를 텔레비전을 통해 연속 상영하도록 전시하여 6 · 25 전쟁 세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도록 설치했다.





9구역 전시장 중심



여덟 개의 구역이 감싸고 있는 원형 전시장의 중앙에는 의정부문화원 닥종이 인형동아리가 6 · 25 당시의 상황을 닥종이 인형으로 표현한 작품이 전시되어 그 당시를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정 중앙에 군모와 장총 그리고 6 · 25 이후 분단을 의미하는 녹슨 철조망으로 꾸민 군인의 묘지 연출과 함께 전사 통지서로 전쟁 경험 세대가 지나온 시대에 대한 엄숙한 묵념의 공간을 만들었다.





50년대 생활상을 표현한
닥종이 인형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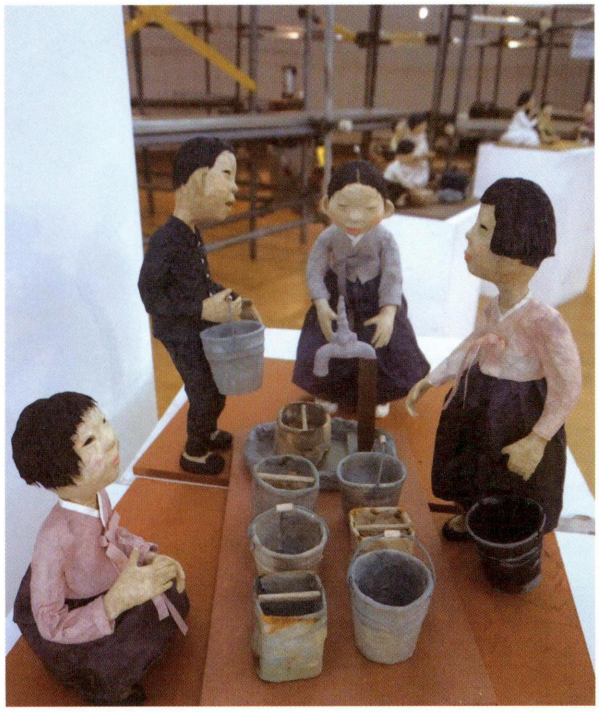






50년대 생활상을 표현한 닥종이 인형 전시







전시품 배치 형식에 비계시스템의 도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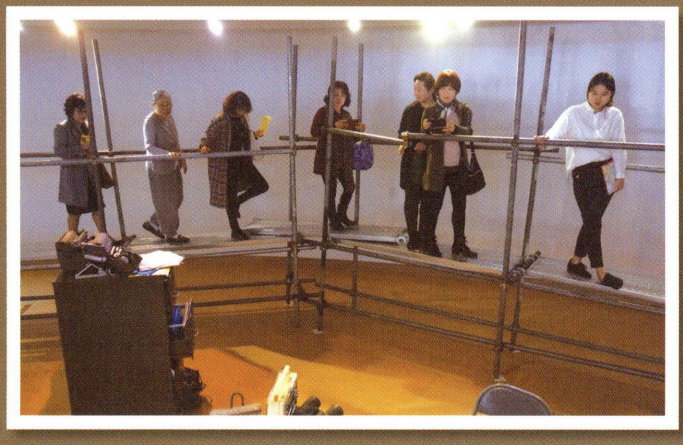
'아직도 설치 중인가?'라는 반응과 '획기적인데!'라는 관객의 선호도가 매우 뚜렷하게 둘로 갈라지는 반응을 유도했으며, 그 두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 모두 '왜?'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들었다.

〈미래유물전2017_의정부편: 극복 D.N.A〉에서 전시되는 전쟁 유물을 바라보는 관객의 눈높이를 보통의 전시와 반대로 전시품은 아래로 낮추고 관객은 위에 위치하도록 비계 시스템을 사용한 이유는 전시 대상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점을 선택의 여지 없이 변경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오늘의 신세대가 6 · 25를 경험한 세대에게 가진 고정 관념에 대한 숙고의 기회, 전쟁 경험 세대에게는 자신들의 세대에 대한 전지적 시점으로 조감(鳥瞰)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전쟁 세대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극복했는지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배려의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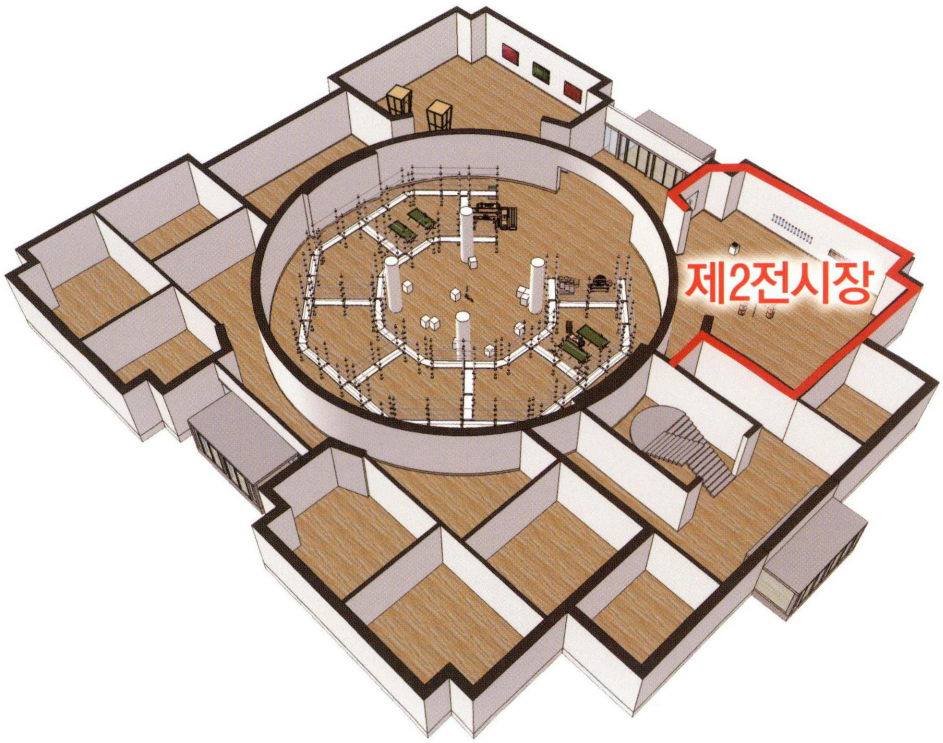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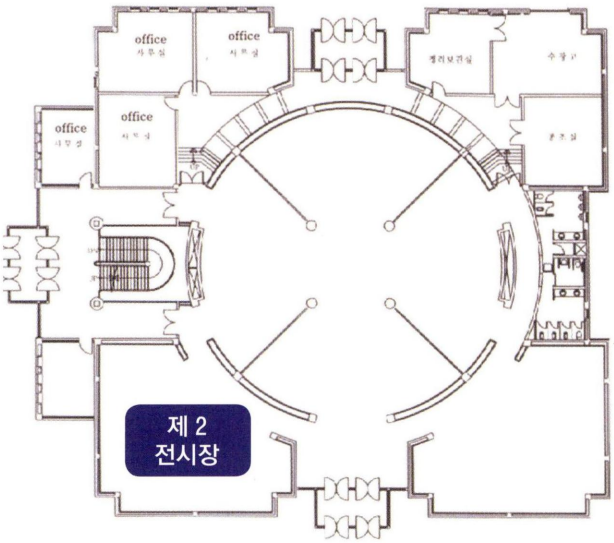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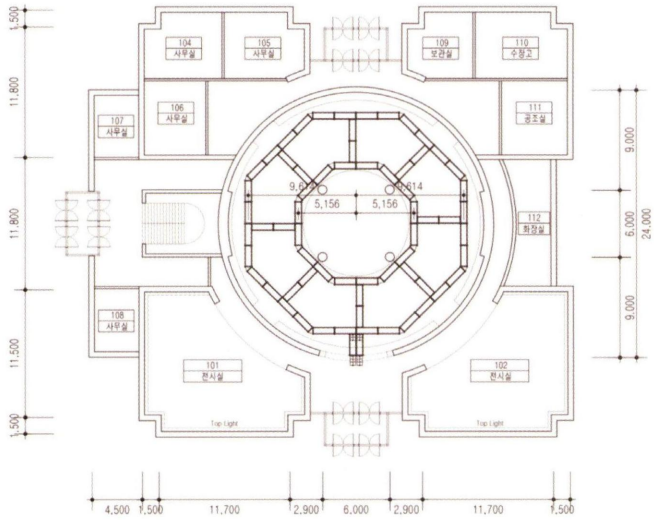




제2전시장


제2전시장


office
office
office
제 2
전시장


104 사무실
105 사무실
109 보관실
110 수장고
107 사무실
106 사무실
111 공조실
112 화장실
108 사무실
101 전시실
102 전시실
Top Light
Top Light
1,500
11,800
11,800
11,500
1,500
9,000
6,000
24,000
9,000
5,156
5,156
4,500
1,500
11,700
2,900
6,000
2,900
11,700
1,500

[Part II: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전쟁 이후 곤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변화는 일어나고
그 변화가 통했다면 그것은 오래 간다는 메시지를 변화의 이치를 연구하는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 나오는 문구로 대신했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 6、25에서 포괄적 개념, 전쟁의 의미를
정신적、물리적 허기로 규정하고,
의정부에 남겨진 전쟁의 은유적 흔적: 부대찌개에서 출발한다.
오늘의 시점에서 어른 세대의 기억과 미래 세대의 향유의 대상인, 전쟁에서
허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해서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통용되는 음식,
전쟁이 남긴 별미들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과 정리의 시간을 제공한다.

[Part II] 에서는

전문 작가 필승의 해석으로 선보이는 작품으로
전쟁에 대한 오감을 자극하여
어른 세대의 기억과 미래세대의 기억을 병치、혼합하여
과거와 현재의 일치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제2전시장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필 승

2004년도 계원조형예술대학 매체예술과 특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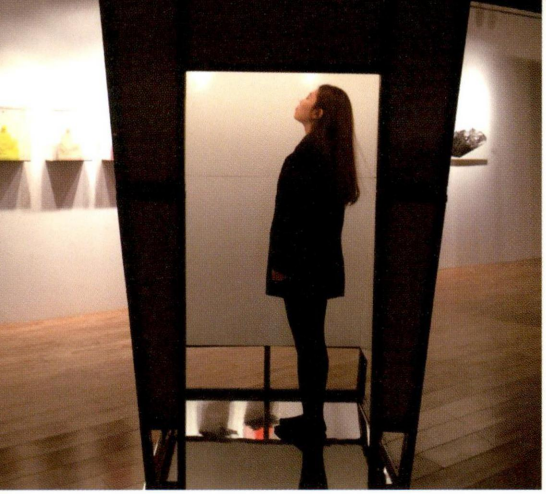
2001년도 계원조형예술대학 조소과

개인전

2016 / un necessary (불 필요한), 것들을 만들다 / 갤러리 토스트 / 서울

2011 / 체험된 순간 I / ATELIER AKI / 서울

2010 / 집짓기 / DESIGN FESTA GALLERY / 도쿄





필승 작가 인터뷰

Q 필승작가는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까? 작가로서 작품에 담는 메시지나 작가만의 조형 형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조각전공을 했고 지금은 조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적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 약간의 기능성 있는 어떤 형태물을 만들어서 관객들의 체험을 유도하는 소통의 장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Q 미래유물전에 참여 제안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전쟁을 다양한 매체와 여러 기록들에 의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 머리로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게 확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족부터 일단 전쟁 피해세대였다는 걸 알고 전쟁이라는 게 저에게 가깝게 있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미래유물전의 참여 제안을 받고 전시의 의도나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유물전의 유물이라는 단어에서 과거에 전쟁세대분들 덕분에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그분들의 과거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 그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필승작가의 작품을 보고 관객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 갔으면 좋겠나요

제 작품 중 초콜릿이 나오는 기계에서 관객들이 초콜릿을 취득해 갈 수 있게 하는 조형물이 있고 그 옆에는 색으로 덮어져 있는 이미지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전쟁시대때 애들이 배가 고파서 미군들을 따라다니면서 초콜릿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사실은 배고픔에 대한 아픈기억이라 생각합니다. 달지만 아픈기억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초콜릿을 관객들이 취득해 섭취하면서 색으로 덮어져 있는 작품의 색을 베낌으로써 미군에게 초콜릿을 달라는 꼬마의 모습이 담겨있는 이미지가 노출이 되어 초콜릿을 먹으면 맛있다.를 넘어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같이 전쟁시대를 공유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Q 의정부극복DNA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군사지역과 미군부대가 많이 결집되어 있는 의정부라는 지역이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은 전쟁과 연관성이 많은 기성세대들과 지금의 세대들이 같이 어우러져 나올 수 있는 자



▲기브미초콜렛 시리즈

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며 의정부극복DNA는 의정부 자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이번 전시에 대해서 작가로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진 전시를 참여하면서 작품 구성도 되지만 저의 환경에 대해서도 되새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전쟁의 피해자 세대였다는 걸 생각하며 진지하게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고 지금의 제가 북쪽이 아닌 남쪽에 편하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품에서도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무 무겁지 않게 조금은 자연스럽게 작품을 풀고자 초콜릿을 오브제로 관객들이 전쟁의 간접적 체험과 전쟁당시의 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관객들한테 전쟁을 생각할 수 있게 접근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Q 이번 전시하는 작품 중에 가장 힘을 들인 정성을 들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초콜릿이 저한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콜릿이 전쟁 당시에 어렸던 꼬마 애들이 전쟁과 배고픔으로 힘들었던 환경에서 미군들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구걸을 했었던 그것이 배고파서 굶주림에 대한 구걸인데, 미군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초콜릿을 주거나 미군 전투식량을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저는 전쟁세대가 아닌데 미군들이 가장 많이 집결이 되어있는 의정부지역에 살면서 제 친구가 어렸을 때 미군들을 보면 미군들 따라다니면서 초콜릿 초콜릿 이러면서 초콜릿을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그 초콜릿이 과거의 그 아픈 구걸과 우리는 사실 재미로서의 구걸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달라는 꼬마아이의 조형물이 서있고 그 초콜릿이 나오는 기계에 원하는 관객들에게 초콜릿을 취득해 갈 수 있게 하여 그 과정은 관객들에게 재미있는 요소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전쟁의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사진작품은 이미지안에 이미지가 있고 그 겉에는 전시 중에는 덮어져 있지만 관객들이 동전을 가지고 겉에 덮혀져있는 색을 베낌으로써 전쟁의 이미지가 노출이 되게하여 결과물이 무겁게 와닿지 않도록 재미와 진지성을 공존하는 작업이 되었으며 좋겠다 해서 이런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캔디머신

▼미군식량 시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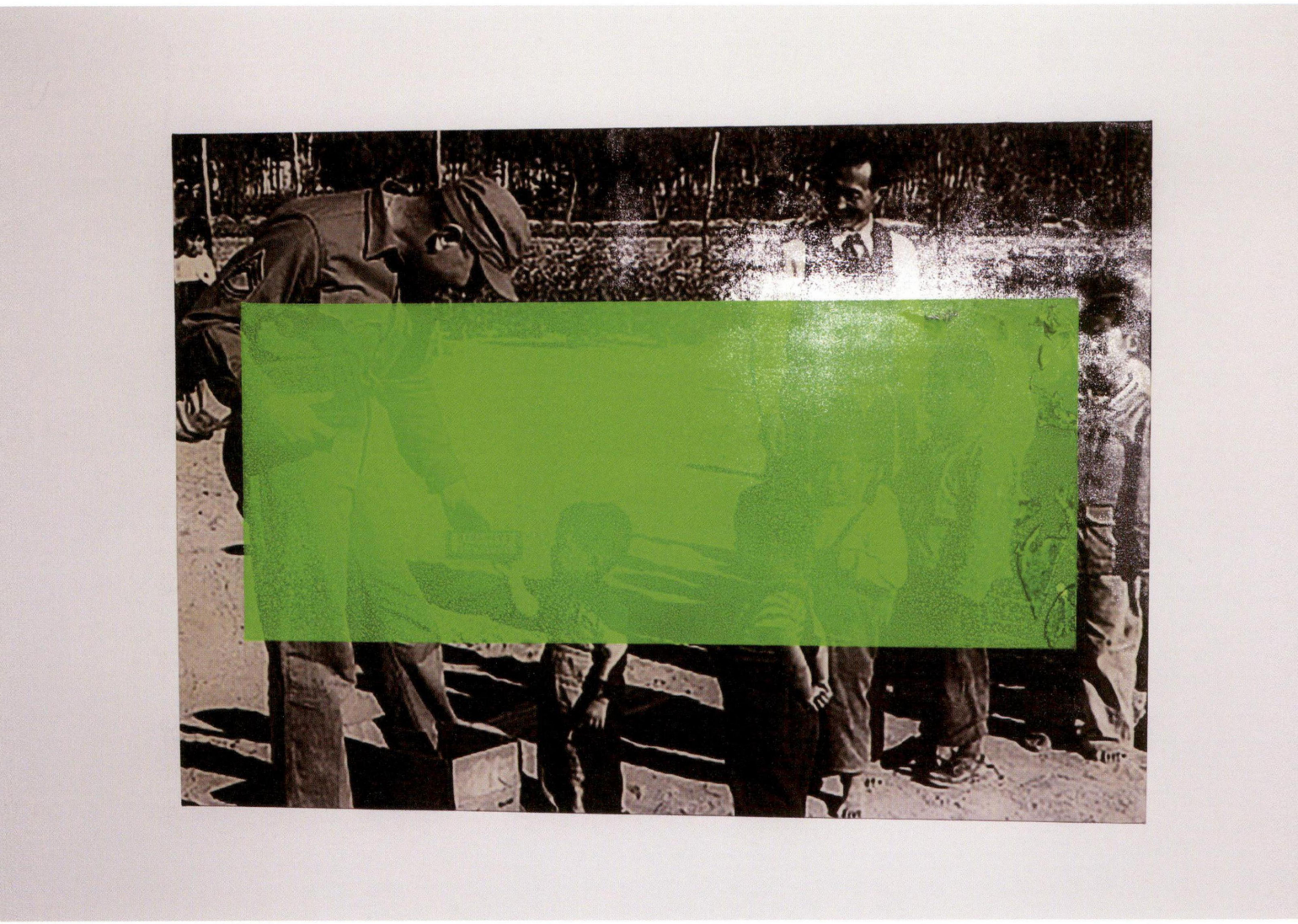




▲공간안의 미적표현방법







기브미 초콜렛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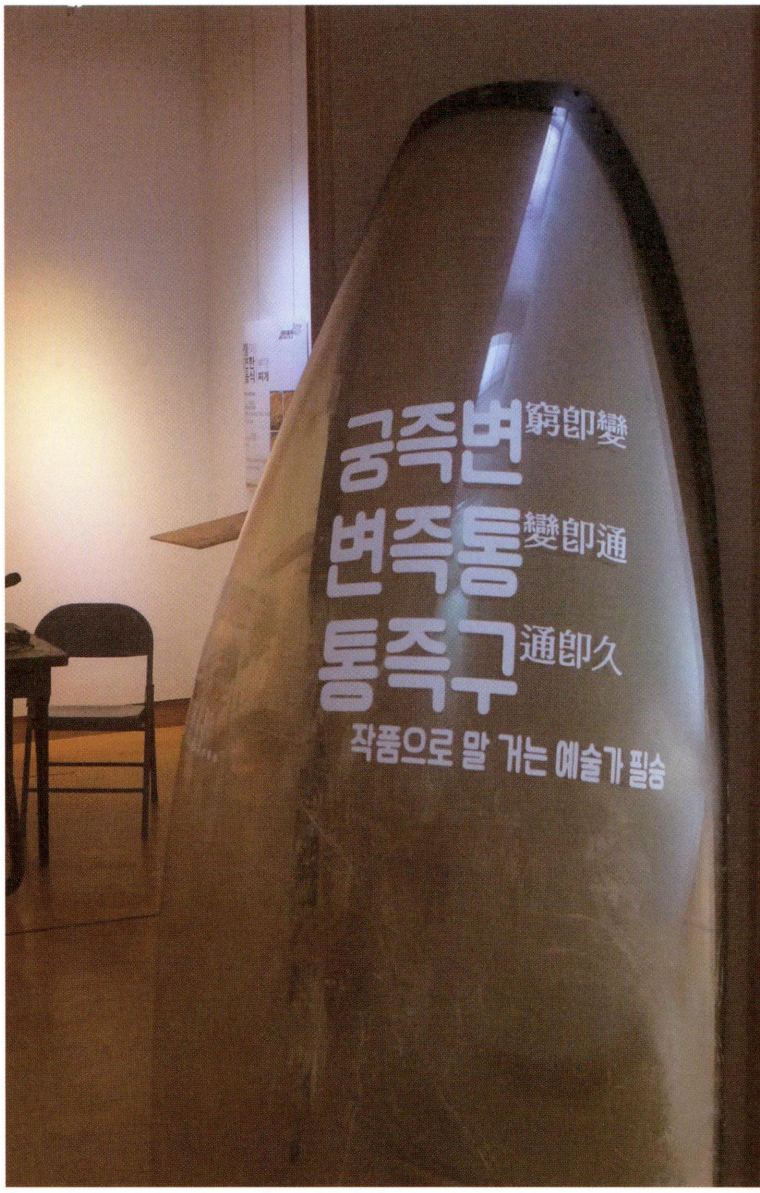
기브미 초콜렛 1






전쟁세대와
전후세대의
기억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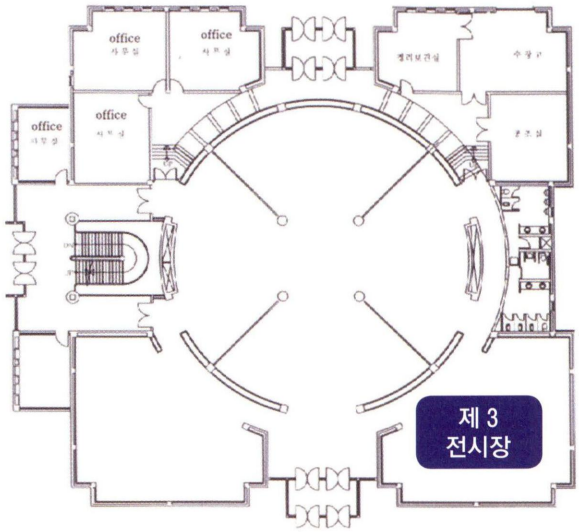

전쟁이 발견한 음식 부대 찌개
전쟁이 발견한 음식 건빵과 별사탕
전쟁이 발견한 음식 스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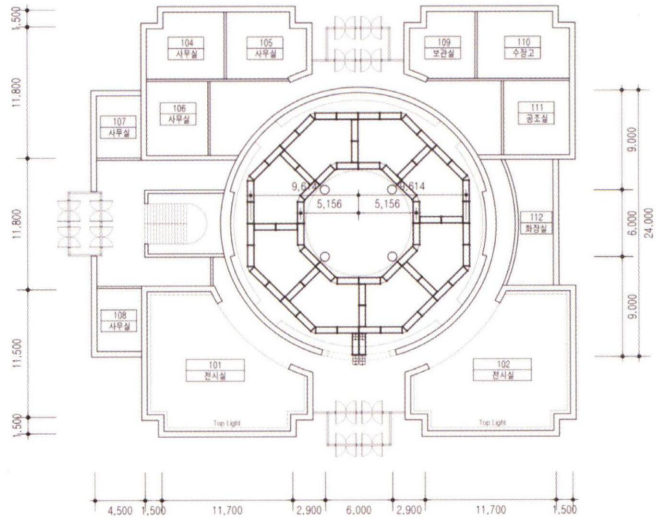

궁즉변 窮卽變
변즉통 變卽通
통즉구 通卽久
작품으로 말 거는 예술가 필승



제3전시장


제3전시장


office
office
office
office
제 3
전시장


104 사무실
105 사무실
109 보관실
110 수장고
106 사무실
107 사무실
111 공조실
112 화장실
108 사무실
101 전시실
102 전시실
Top Light
Top Light
5,156
5,156
1,500
11,800
11,800
11,500
1,500
9,000
6,000
9,000
24,000
4,500
1,500
11,700
2,900
6,000
2,900
11,700
1,500

[Part Ⅲ : 기억의 현재]

근현대사 속 어른 세대의 기억이 오늘의 시점에서 반추되는 기억은
어떻게 편집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기억(역사)에서
무엇을 유산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Part Ⅲ] 에서는

조형 예술가 이한나의 현재에 소환된 기억에 대한 시각적 고민을 발견할 수 있다.
〈미래 유물展〉이란 제목에서 시간의 충돌을 유추해 낼 수 있었듯이
'기억의 현재'도 동일 선상에서, 축적되고
경험된 기억이라는 '과거'가 '현재'라는 오늘의 시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작동해야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한나 작가가 스스로에게 또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답을 찾는 과정의 시각적 기록이다.

이한나

현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조소 전공

2012. M. S-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예술 공학 졸업, 미디어아트 전공

2008. B. F. A-온타리오 예술 디자인 대학교 종업, 서양화 전공(토론토, 캐나다)

2004. ETOBICOKE CALLIGIATE 고등학교 졸업 (에토비코, 캐나다)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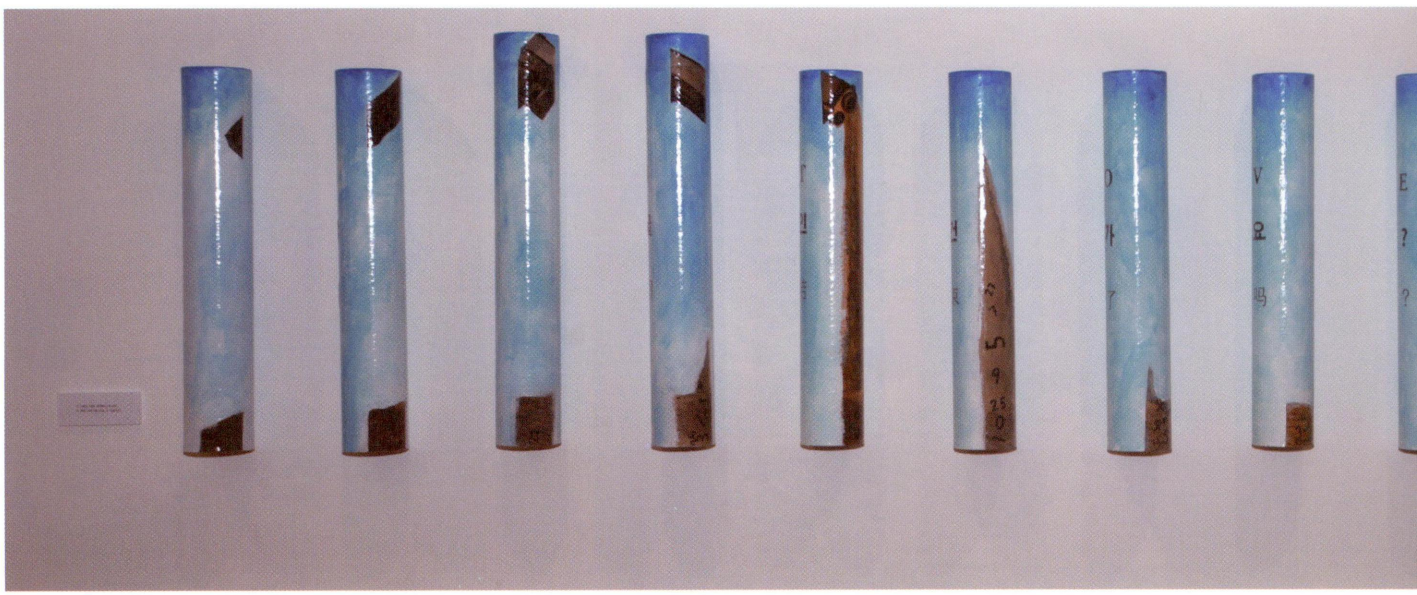
2013. 07. 17~31 "할아버자 집", 서울, Gallery Cate La Seine

2009. 07. 08~14 "Obsession", 서울, CUBE SPACE Gallery

출판

2012. "IBG-Is Beauty Good?"석사 논문

2011. "시각 예술과 영상 합성의 이해"번역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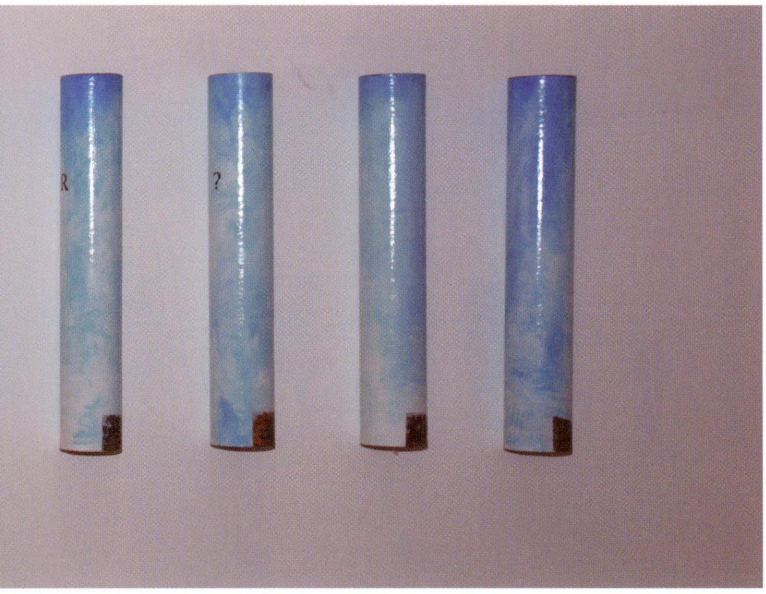




기억의 현재

당신의 답을 기다리는
예술가 이한나

지금, 여기에서 들여다본 기억의 차이 그리고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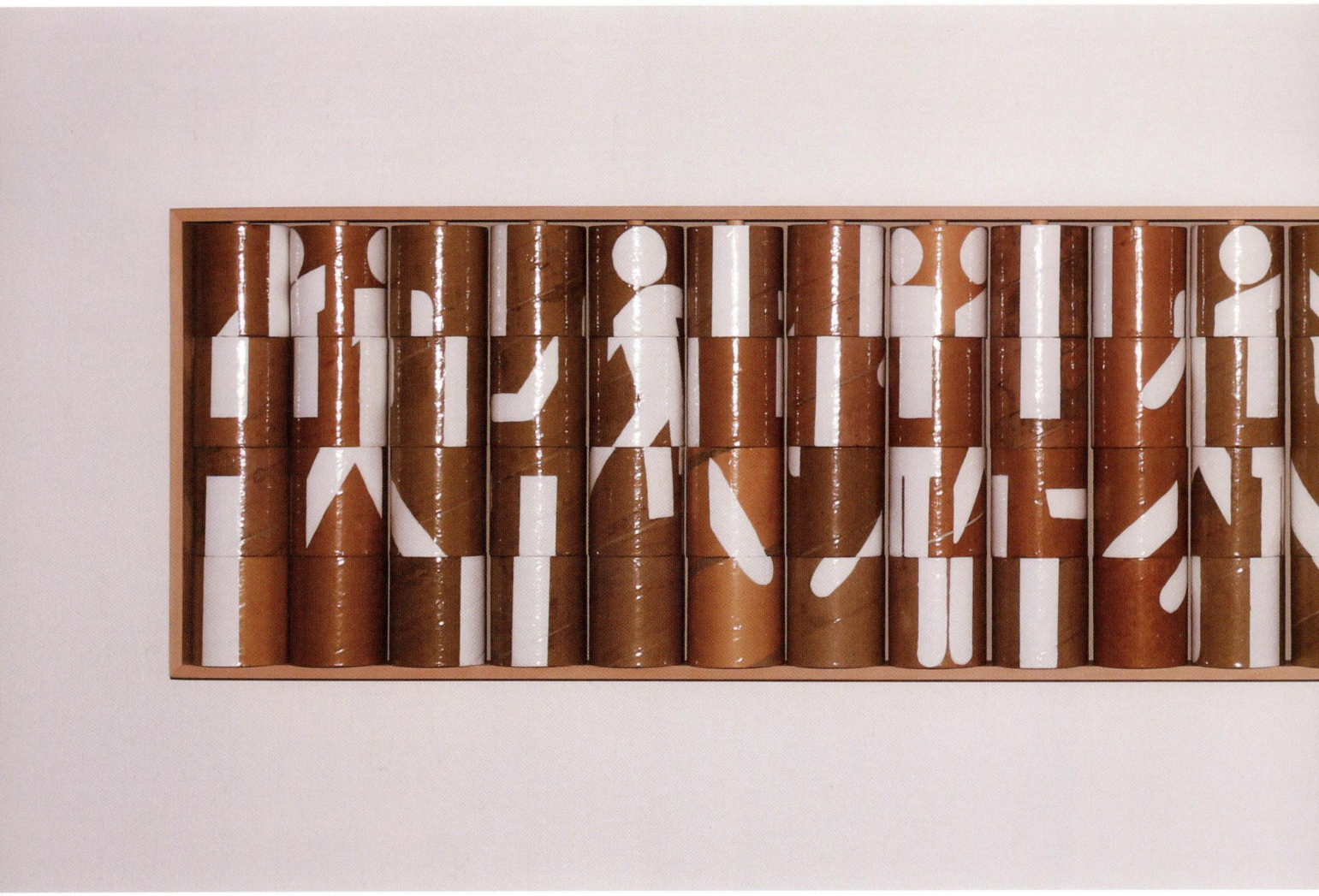
“Is It Over?”에서는

총에서 폭포가 흐르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총은 전쟁의 폭력성을 상징한다. 그 폭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눈물들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눈물 사이로 숫자들이 보인다. 이 숫자들은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의 달의 숫자들과 휴전된 날까지의 달의 숫자들이다. 그리고 다른 면에는 “정말 끝인건가요?”라는 질문이 세 개 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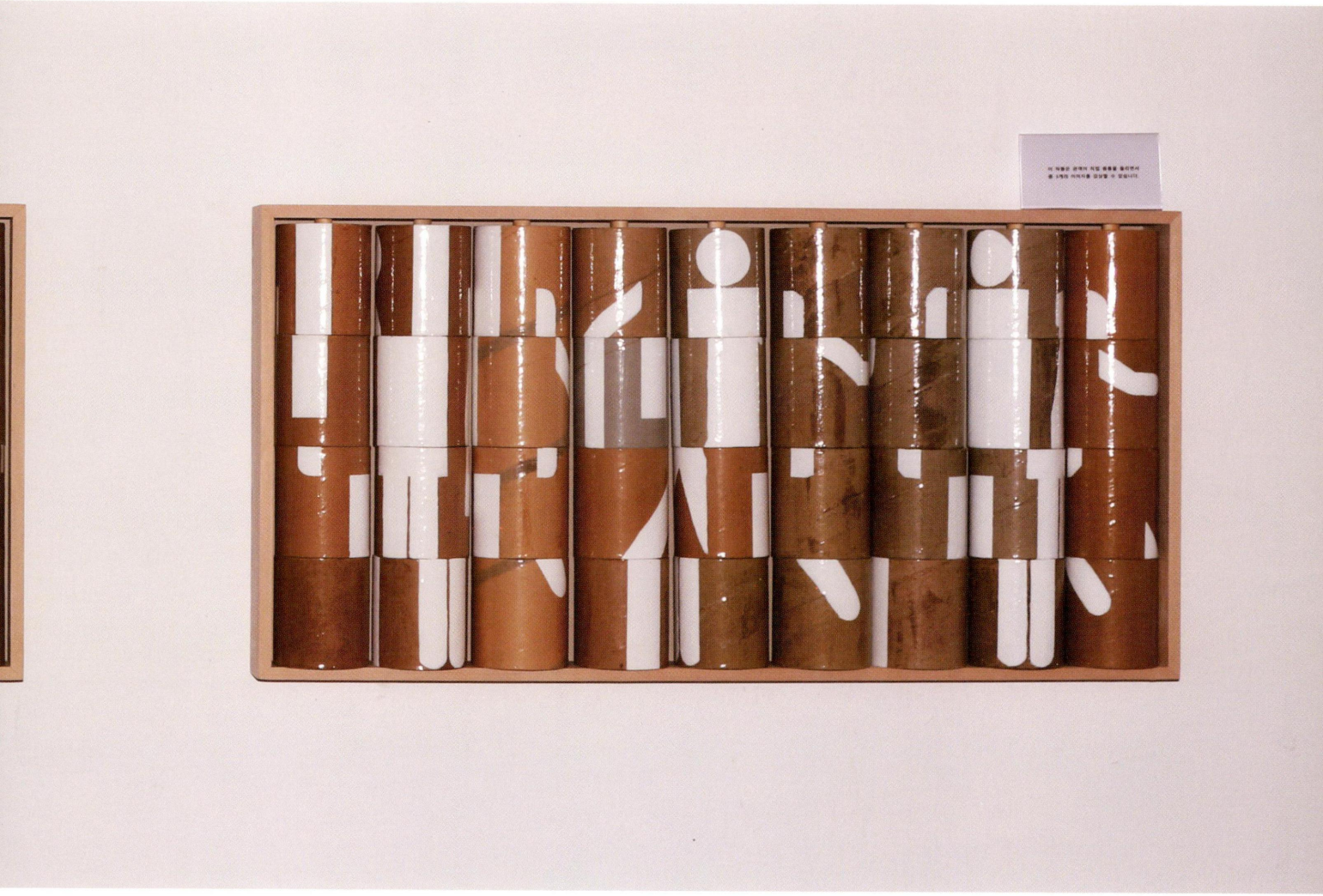
나는 관객에게 답을 주기 보단 한국전쟁이라는 특수적인 한국의 상황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작업은 양쪽 측면에서 사선으로 관람했을 때 두 개의 다른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신호등에서"라는 작업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호등의 횡단보도와 신호등, 출구 싸인의 사람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 졌다. 앞서 말한 횡단보도의 선들과 건널목의 신호등에서 보이는 걷는 표시와 멈추라는 표시, 그리고 출구 속 뛰는 사람의 이미지들로 구성되었다. 나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위급한 메시지를 가진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한국전쟁에 관해 접근해 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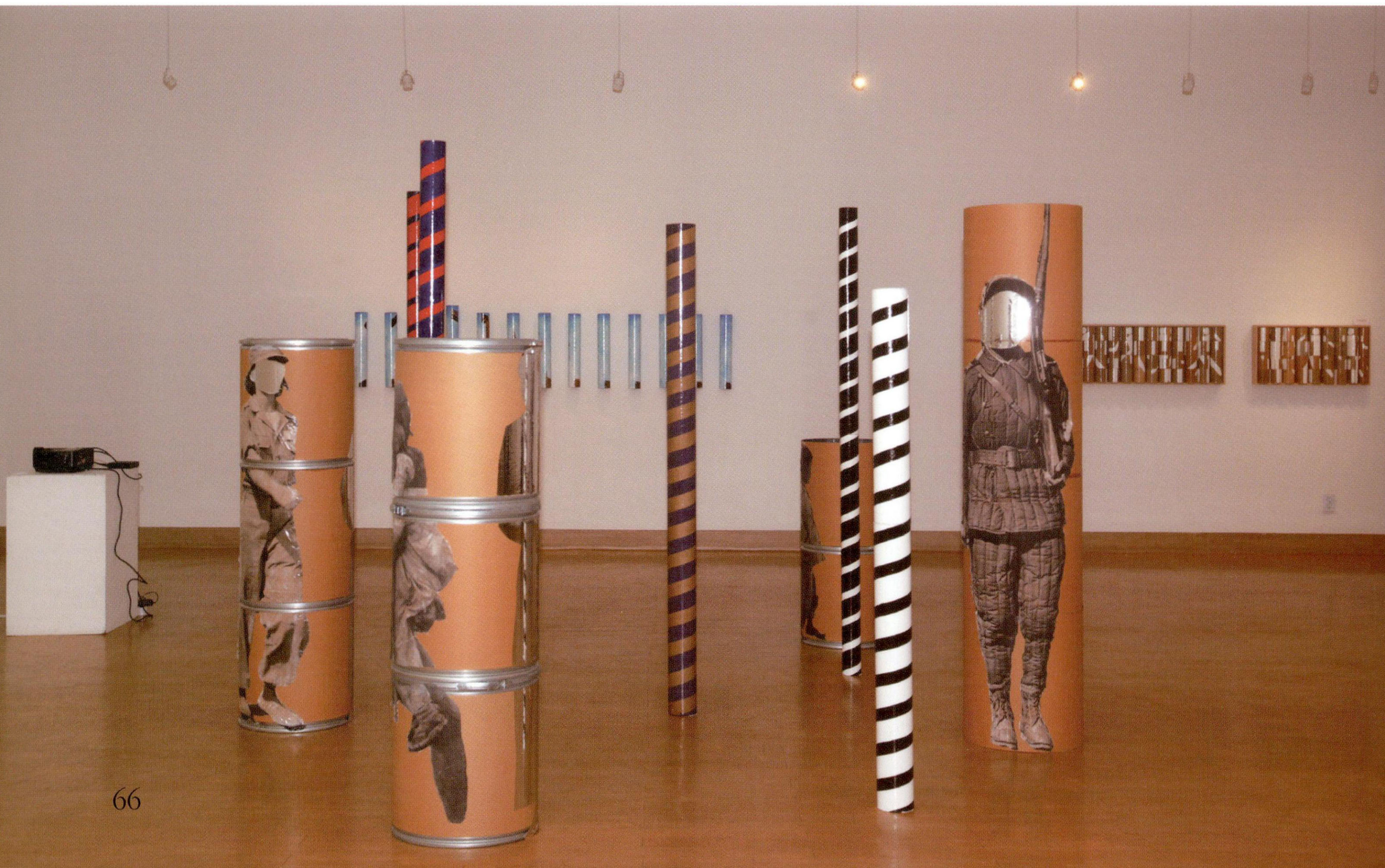


이 작업에서 관객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관의 삼면을 이용하여 관객이 직접 원통들을 돌리며 본인이 원하는 결말을 얻을 수 있다.

각자 다른 결말을 관객이 카메라에 담아 sns를 통해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작가와 관객의 소통을 넓혀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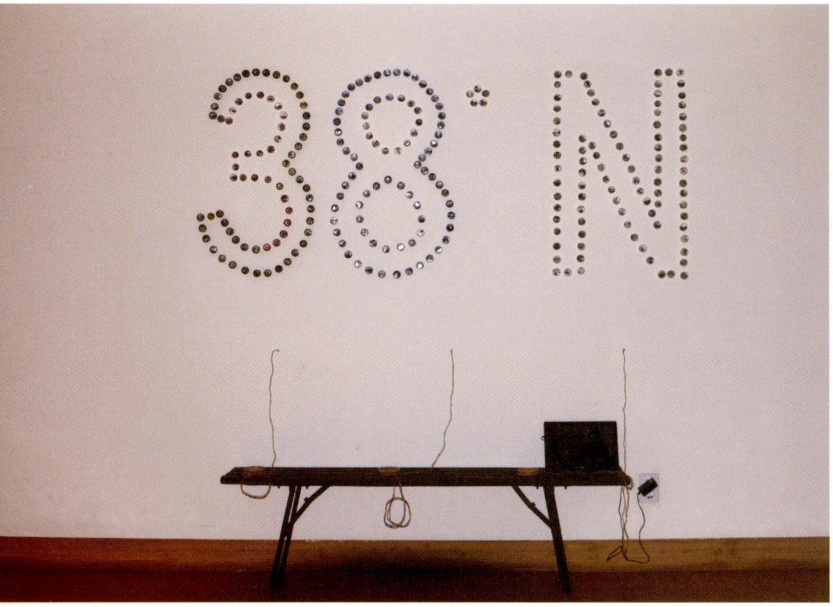
“회전목마 속 우리를 만나다”라는 작업은

회전목마에서 영감을 얻었다. 회전목마의 시초는 “17세기에 유행했던 마상시합을 뜻하며, 기사(騎士)가 말 위에서 창을 던지기 위한 연습도구로서 고안되었다. 이 때 말에는 화려한 마구를 달았는데, 회전목마에도 비슷한 마구를 달고 그런 이름을 붙였다(두산백과)”. 이렇듯 현재는 놀이기구로 사용되고 있는 회전목마가 첫 시작은 싸움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회전목마의 말 대신, 큰 원통의 양면에 과거 한국전쟁 당시 우리 과거 속 조상들의 그림자 모양 위에 관객이 본인들의 모습을 비쳐보고 반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38선"이라는 작업은

관객이 직접 돋보기를 이용하여 작품을 관람하는 방식이다. 내 작업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는 관객과 소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기존에 미술감상법인 눈으로만 감상하는 방식이 아닌 관객이 직접 작업을 만지고 돌려봄으로써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연출하고, 사용함으로써 작업을 완성시켜주길 바란다. 벽 위에 붙어있는 작은 사진 이미지들로 '38° N'이라는 글씨를 만들고 그 안에 작은 이미지들을 보기 위해 관객은 설치된 돋보기를 이용하고, 거기에는 작가가 들려주고 싶은 하나의 문장이 자음과 모음들로 흩뿌려져 있다. 그 문장을 찾는 것도 관객이 이 작업을 관람하는 재미 중 하나이다.





“출구 없는 탈출”이라는 작업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작가에겐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 속 반복이라는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그 심정을 탈출 싸인에서 영감을 얻어 영상화하였다. 영상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 출구 표시 속 사람은 출구를 찾아 끊임없이 달린다. 하지만 결국 다다른 곳엔 출구가 없다는 좌절스런 문구뿐이다.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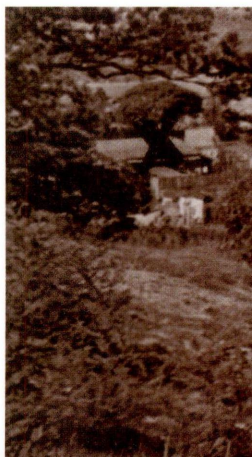
남경필 경기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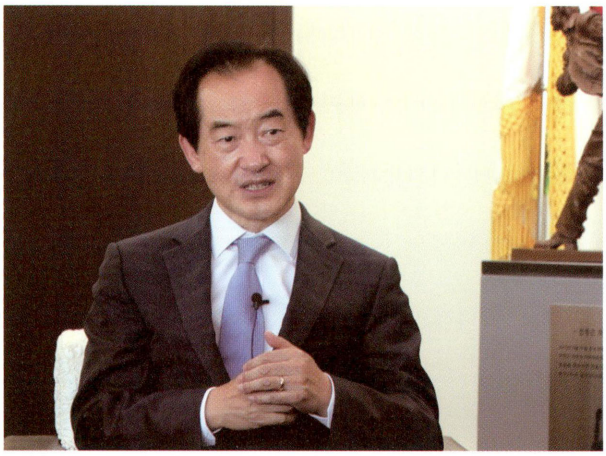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2017년 미래유물전 극복DNA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전시된 다양한 군사물품과 생활물품에는 의정부의 과거와 현재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삶에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온 선배들의 지혜,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할 더 없이 큰 유산입니다.

의정부의 오늘을 만든 극복의 DNA,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며 경기도와 경기도지사 남경필은 언제나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의정부문화원 화이팅! 의정부시민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를 소개해 주신다면?

말 그대로 역사의 향기가, 특히 조선의 향기가 서려있는 고장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이에요. 또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역사적 향기뿐만 아니라 원도봉산, 수락산, 부용산, 천보산에 둘러싸여 있죠. 천보산이 뭡니까 하늘이 주신 보물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 가운데로 흐르는 중랑천을 비롯해, 부용천, 회룡천, 백석천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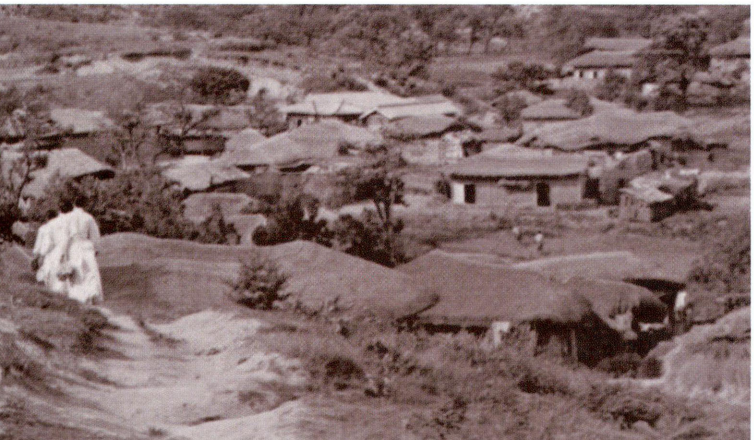
의정부와 미군부대는 어떤 애증의 관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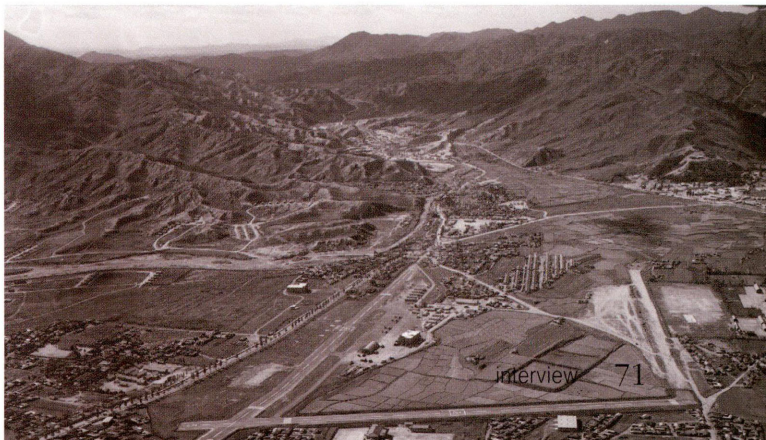
저는 의정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경기북부의 중심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외부 사람들은 "요즘 부대찌개 맛있는데요."라고 의정부 부대찌개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부대찌개의 부대가 미군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정부에는 한국에서 제일 많은 수의 미군캠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있었습니다. 무려 8개의 미군부대가 64년이나 있었습니다.

의정부는 어떻게 보면 미군부대와 함께, 역으로 말하면 미군부대를 위해서 있는 도시 같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서 달러가 제일 많았던 곳이 의정부였습니다.

한국에는 50년대, 60년대는 햄과 소세지도 없었고, 달러($)라는건 어디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interview

그러나 무슨 이유였든간에 햄과 소세지를 미군부대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햄과 소세지는 그대로 먹지 않고 김치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서 퓨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퓨전음식으로 되었죠.
한국경제에 일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커짐에 따라서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끼치는, 한국 전체에 끼치는 역할이 적어지게 됩니다.
80년대부터는 미군부대 자체가 지역발전에 어려움, 때로는 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군부대로 인해 안보 일번지로 고생을 했는데, 그 미군부대가 LPP(부대이전)계획으로 모두 다른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평택이 되는데요.

부산, 대구, 파주, 의정부, 용산에 있는 모든 미군부대를 한곳에 모으는 부대이전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애증과 공과가 있습니다만, 모두 이전계획에 따라서 8개의 미군부대 중에 이미 5개가 떠났고, 3개가 내년 중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요충지라서 아름다워서 미군부대로 공여한, 공적으로 대여한 미군공여지가 64만에 의정부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의정부의 비전과 10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정말 우리 의정부는, 지금의 여의도보다 지금 상상하는 강남이나 청담동보다 몇 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청담동은 옥수수밭, 배추밭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는 분명히 모래밭, 뭐 어렸을 때 거기에서 수영했던 곳인데 역시 그 정도의 가치만 있습니다. 그저 대리석인 거예요.

의정부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군부대가 돈 한푼 없이 60년 동안 무료로 가질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땅 아름다운 곳을 고르고 고른 땅이 의정부에요. 그러나 부대이동으로 그 공여지는 그들이 달라고 해서 64년 동안 줬는데 정말 그 보석이 다듬어지고 약간 가공한다면 대리석에 비하겠습니까, 보석인데. 그래서 의정부시장 나가면 우리의 빛나는 보석, 저는 미운 오리새끼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남들은 꺼뭇꺼뭇하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의정부만 복잡하게, 억울하게 미군부대가 있으니까 저만 왜이래요. 뚱뚱하고 허연 백조가 나는 좋아요.

그러나 그 뚱뚱하고 하얀 백조가 창공을 날 때, '그 꺼뭇꺼뭇한 오리와 다른 그 무엇이 있구나.' 하듯이 정말 미군부대가 간 다음 우리 땅은 미운우리새끼, 백조가 나는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본래 의정부는 보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며칠 전에 KB손해보험 프로배구단이 왔어요. 성남, 수원, 화성, 평택이 몇 십억 선투자한다고 서로 유치 경쟁을 벌이니까 거기에서 컨설팅을 한 거예요.

서로 달라고 하니까. 뜻밖에 오라고 손짓도 안한 의정부가 채택이 됐어요. 왜 그러냐, 40억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치를 보면 의정부가 맞다' 이렇게. 그래서 MOU해 달라고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산곡동 교도소, 미군부대 앞이라는 허허 벌판에. YG라는 데서 몇 명만 가도 에펠탑이 열리고, 백악관이열리고, 빅뱅 다섯 명만 가도 상암동 경기장에 몇 만 명씩 몰리는데, 그 YG본부가 자기네들이 5000억을 투자해서 의정부로 온다는 거예요. 신세계 아울렛이 이천 있고, 파주에 있는데, 거기 최신 모델이 의정부에 온다고 '땅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한국에서 제일 큰 뽀로로 테마공원이 의정부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있는 자들은 이제 앞 다투어 의정부로 오고, 말죽거리가 배추밭이 강남이 됐듯이,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비즈니스 센타가 오듯이, 의정부는 경원선의 시발역이고, 이쪽으로 가면 경원선이고 금강산있고, 명사십리 가는, 또 원산으로 가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통일의 기운이 온다면, 의정부에 오지 않으면 사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이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미래의 의정부를 세 마디로 요약한다면, 100년이 아니라 20년 이내에 의정부를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의 중심 핵심도시가 될 겁니다.

타임캡슐에 묻어서 미래유산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실제로 이제 의정부역 앞에 미군부대 100주년을 위한 타임캡슐을 넣습니다. 만약에 타임캡슐을 묻어서 100년 후에 미래세대에게 볼 수 있는 것을 추천하라고 하는데, 욕심은 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100년 전에 이렇게 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이 있었다.

우리의 자랑이다.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저의 마음을 꼭 넣겠습니다.

정말 2017년에 백년을 그리면서, 그 동안에 한없이 고생한 의정부 시민, 그러나 의정부가 보석보다 아름다운 가치있는 고장이라고 연구、고민하면서 공부하던 의정부 시장이 있었다.

저의 시(市)는 이미 기네스북에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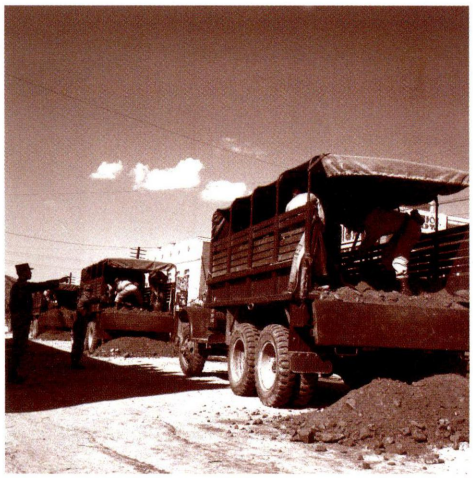
아침에 시장, 부시장이 정책포럼을 하는데, 매일 7시에 시에 필요한 정책을 박사님 모시고 모여서 정책을 연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시장 도지사가 있는데, 기네스북에 올려주세요. 해서 기네스북에 올리게 된 거예요.

2017년 현재 시민을 위해서 새벽을 밝히면서, 공부하고 시정을 이끌었다.

마찬가지로 조선이 600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공부하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 왕과 그 신하들이 치열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조강, 낮에는 주강, 저녁에 석강이 있었다.
다른 건 다 용서되더라고 왕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그리고 신하와 왕이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조선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미래가 있느냐.
대통령께서 공부하느냐. 도지사는
정말 정책보고서와 책을 읽느냐.

의정부시의 미래와 비전이 있느냐.
의정부는 어떻게? 의정부는 한국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시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보고서를 타임캡슐에 꼭 넣을 겁니다.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의정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의정부는 조그마한 상업중심도시였는데, 6·25전쟁 후에는 유엔군과 미군이 주둔하면서, 나쁜 쪽으로는 기지촌이 생기고, 정서가 많이 불안해지고, 미군을 상대하는 접대부들이 많이 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다보니 미풍양속이 많이 훼손된 지역이 아닌가 기억됩니다. 1988년 올림픽이후 의정부는 상당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정부를 스쳐간 역사가운데 전쟁 후 강렬했던 기억은?

아무래도 의정부 하면 전쟁 후에 기지촌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이 격전지역으로 안보의 요충지가 된 점은 있지만,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으로, 군사도시가 되다보니, 미풍양속이나 도의, 문화재, 생활문화도 많이 훼손된 지역이라 아픈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기억, 혹은 슬픈 기억은?

아무래도 의정부하면 문화적이나 역사적으로는 아픈 기억이라고 하겠어요.
전쟁으로 인해 피해도 많이 입었지만, 특히 정서가 불안하다거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이 나쁘다고 하는데, 여기서 물이란 마시는 물이 아니고 '시민들의 마음이라든가 지역사회 분위기가 유엔군의 주둔지역이라 불안한 지역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폐허된 지역에서 의정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시는지?

전쟁 후 휴전이 되고나서 안보의 요충지라 미군부대가 주둔하게 되니까,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미군부대 있는 곳에 가면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여러 곳에서 모여들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살고 있는 시민의 분포도를 보면 토박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 출신은 20%미만입니다.
경상도, 호남, 충청도, 그리고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고향이 가까운 곳이라 해

서 이 곳에 많이 모여서 주민분포가 다양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군사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어서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보다 발전이 많이 둔화된 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미군 주둔이 남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설명해 주신다면?

우선 부정적인 것을 들자면, 문화적 측면에서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아쉽게도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라, 전통문화가 쉽게 사라진 곳이라 생각됩니다.
군인들에 의해 서양문화가 많이 들어와 혼합이 되어서 전통문화가 훼손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의정부 부대찌개하면 미군부대에서 나왔던 햄, 소세지 등 서양문화와 한국전통 식문화인 김치가 퓨전음식이 되었습니다.
서양문화(군인문화)와 전통문화가 마치 의정부 부대찌개처럼 함께 융합 되어서 새로운 한류문화를 창조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것 중 보전해야 할 것은?

의정부 문화재 중 국가적인 것은 없지만 지방문화재 대부분은 충효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많은 경향입니다.
송산사에 모신 여섯 분들, 다시 말해 조선 개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분들이죠.
또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정문부 장군, 신숙주 선생, 김구선생도 한 때는 원도봉산 회룡골 인근에서 은거했었던 곳이 있죠.
의정부의 충효정신은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의정부는 군사주둔으로 인해 문란해진 도덕이나 미풍양속의 훼손 같은 나쁜 이미지들은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합니다.

의정부의 미래를 상상할 때 바람직한 모습은?

의정부는 위치상으로 봐도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요충지이며, 경기북부 산업, 문화의 중심도시입니다.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을 잘 살려서 문화나 물류, 의정부가 통일에 대비한 서울의 관문도시로서 통일에 대비한 비전을 갖고 발전시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전해줄 타임캡슐에 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문화재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지역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정신적인 것이 담긴 문화재를 통해 우리의 기본적은 정신은 충효정신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충효정신을 담고 싶습니다.

의정부는 친환경시설(3대 쓰레기, 하수, 분뇨)이 전국 최초로 갖춰진 위생적인 친환경적인 도시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을 부르짖는 미래 세대들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보다 나은 쾌적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타임캡슐에 넣고 싶습니다.

어릴적 마음으로 돌아가 선인들에게서 받았으면 하는 유산은?

의정부는 양주의 한 읍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양주지역에는 특히 무형문화재가 많은데, 즉 양주별산대놀이, 소놀이굿, 양주들노래 등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전통적인 문화재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도 옛것을 되살려서 선조의 맥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향토사료관에 유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만의 새로운 한류를 창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유물전을 주관하시면서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전쟁의 격전지이고 군사의 요충지역에 살다 보니 6 · 25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중에서도 문화유산등 우리들이 소장했던 개인의 유물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상의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들을 되찾아서 우리 조상들의 맥을 이어 나가려면, 이러한 유물들을 보면서 조상의 때가 묻은 것을 실제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좋은 것은 이런 조상의 물려준 것에 있구나 하는 것을 재인식을 해서, 우리들도 그분들이 남겨준 유산 위에다가 우리들이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한류문화를 접목해서, 의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으뜸가는 문화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문화학교 교장

기억에 남아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은?

전쟁이 나서도 우리 나이 때는 군인들이 연습하고 훈련받는 것을 보면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가 내 나이 12, 13살 때 기억인데, 의정부 시내에서 벌어지는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모습을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막상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포탄에 의해서 다리가 잘리고, 피가 나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지요.

의정부 하면 어떤 곳이라 생각하는가?

의정부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 사랑한 도시였죠.아름다운 도봉산있죠, 수락산있죠, 천보산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천재지변이 별로 없는 도시죠.

평생 살아오는 동안 큰 홍수를 서너 번 겪었을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데가 의정부인지 몰라요.

전쟁 후엔 한국 전체가 다 어려웠지만, 비록 6 · 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의정부가 격전지였기 때문에 너무 참혹하게 변했지요.

전쟁 3일 만에 의정부는 완전 폐허가 되었지요. 기와집 3채만 덩그라니 남아있었죠.

역 앞에, 배영초등학교 앞에, 가능동 올라가는 길옆에 기와집만 남고 폐허가 되었지요.

기와집은 포탄이 날아와도 불이 붙지 않아서 남게 되었나 봐요. 모두 폐허가 됐어요.

아비규환이죠, 그래서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이후 가장 기쁜 기억은?

전쟁 이후에 살아남은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교에서 만났을 때 무척 기뻤죠.

비록 학교가 불타서 없어졌지만,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미군들이 제공한 천막교실에서 공부하던 기억과 그리고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것이 내 생애 가장 기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의정부는 어떻게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정부는 6 · 25 전쟁 전에는 인구 2만이 될까 말까 하는 읍 소재지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는 포천을 통해서 원산까지 가는, 동두천, 연천,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 중심역할을 하는 요지이죠.

서울의 관문, 서울을 지키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6 · 25전쟁 때는 격전지였죠.

의정부 사람들은 금오동 뒷산을 빡빡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원래 산 이름은 천보산이예요.

왜 빡빡산이라고 하냐면 6 · 25전쟁 때 산에 포탄이 비오듯 쏟아져서 나무가 한그루도 없이 사라져 민둥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빡빡산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범골 동네 뒷산 밤나무아래 앉아서 금오동에 포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구경삼아 보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은?

6 · 25 전쟁을 겪고 나서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학교 다니던 아이들, 너무너무 불상했어요.

그때 학교 다니던 아이들 보면 아침 끼니를 못 먹고 등교하는 아이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이 없어 밖에 나가 운동장을 빙빙 돌다 물로 배를 채웠던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하고 늘 생각했어요.

저는 초 ·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6남매가 고아같이 힘들게 살았어요.

나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돼서 신문배달을 하면서 돈을 모





아 겨우 고등학교를 편입해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편 잡고 있었던 시절,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선생들한테 구두를 닦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제자들 3명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자고 설득했어요.

구두를 닦던 안 닦던 양해를 구해서 한 달에 50원씩 받아서 50명의 교사들에게서 받은 2,500원으로 3명의 제자를 학교 다닐 수 있게 하여 졸업시켰죠. 세 아이가 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스스로 대학을 다니고 성인으로 잘 성장한 일이 보람된 일로 기억합니다.

의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한 원동력은?

의정부는 인천, 수원, 그다음 세 번째로 1963년 시로 승격했는데, 사실은 발전 속도는 굉장히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보호지역, 그린벨트, 고도제한 등 제약 때문에 발전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씩 풀리면서 80년대 후반 전철이 들어오고, 양수리 쪽에서 수돗물이 들어오고 나서 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오랫동안 발전이 더딘 것은 의정부역 선로 서쪽에는 지금 신시가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미군탄약고가 도시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발전이 제약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해결되면서 1963년 시(市)가 되면서 인구가 6만이 조금 넘었죠. 전철이 들어오고 나서 인구가 늘어나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엔군 도움과 미군부대의 지원에 의해서 학교, 공공시설 등 많은 도움을 받았죠.

국가의 도움이 있었고, 의정부시 재정도 늘어나고, 시민들의 단합도 한몫을 했습니다.





최영희 향토문화연구소장

의정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린 시절 중 · 고등학교가 지금은 배영초등학교자리였었는데, 새말에서 부용천 뚝방으로 아침저녁으로 걸어 다녔는데, 지금도 걷는 것은 자신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평지를 걷는 것은 얼마든지 자신이 있죠.

등하교길이 3, 40분정도 걸리는 길이다 보니까 항상 걸어 다녔죠.

예전 시내 중심부에 조그마하고 초라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시험기간 중에는 친구들과 시험 준비한다고 떠들며 지내던 시절의 그곳이 생각납니다.

의정부에 살면서 기억 속에 각인된 사건이 있다면?

초등학교시절, 추동공원 고개 넘어 학교에 가는데 큰길가에 여러 대의 버스가 서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4 · 19의거 때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때가 10살 안팎이었는데 집에 가라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득문득 그 모습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의정부에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추억은?

여중 · 고를 다닐 때가 가장 즐거웠던 때 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것이 즐거움인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학생시절이 제일 즐거웠던 기억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을 한 달에 한번 만나고 있으니까요. 친구들 만나면 식사하고, 수다 떨고, 시간 맞춰 여행도 가고 그러죠.

의정부지역이 발전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자체 관계자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 생각인데요.

경기도 내에서 수원이 먼저 시가 되고, 인천이 시가 되고 세 번째로 의정부시가 됐는데 안양, 부천 등 나중에 시가 된 경기남부 도시는 금방 성장하는데, 의정부는 더디게 성장하는 게 속상했어요.

요즘에는 단합된 시민들의 힘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타지역에 있다가 90년도에 의정부에 오니까 많이 발전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철이 다니고,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구요.

경기북부 지역이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발전 속도가 느렸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미군기지가 끼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먼저 긍정적이라는 것은, 시장이 활성화 되고 시내가 활기가 넘치게 되었죠.

미군들이 나와서 돈을 많이 쓰고, 그들을 상대하는 여자들이 돈을 쓰고, 미군 물건들이 나와서 시장이 활성화되었지요.

미군들이 도로를 내주고, 공공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또는 홍수가 나서 나무다리가 끊어지면, 미군들이 나와서 다리를 복구해 주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그걸 복구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미군이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었죠.

부정적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었는데요. 의정부에서 왔다고 하니까,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이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기지촌만 있는 곳이라는, 미군을 접대하는 여성들이 많은 곳이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했어요.

의정부가 보전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보전해야 할 것은, 6 · 25 전쟁으로 인해 모든 자료가 소실되어 안타까운 마음인데, 사찰이나 공공기관의 서류도 모두 소실됐다고 합니다.

의정부와 양주가 합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 양주와 합치게 된다면 역사얘기 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많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의정부만의 무언가를 자

긍심을 갖고 해주었으면 합니다. 의정부에 있는 많지 않은 문화재지만 잘 정비하고 보전하면서 홍보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 년 전부터 이야기 하고 주장 했는데요. '미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의정부에 주둔했던 장병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 식기, 의복, 작업도구, 캠프깃발 등 그들이 사용했던 것들을 전해 받아서 보관하고 모아서 전시하면, 훗날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수차 얘기하였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시장님은 미2군단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안보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앞서 얘기한 것을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의정부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훨씬 살기 좋은 의정부가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다민족 시대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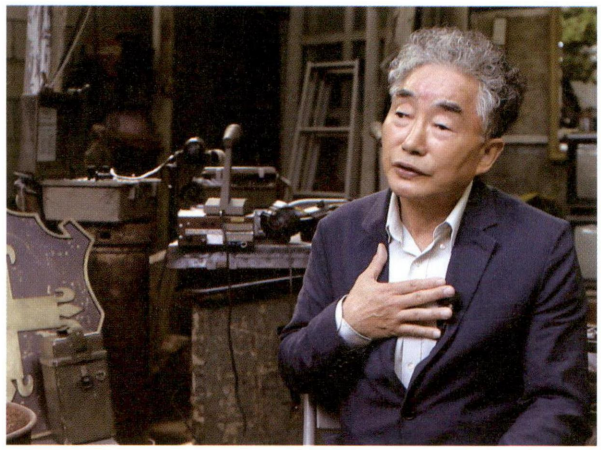
의정부에도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들에게 우리나라 풍습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우리도 그네들의 풍습을 이해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 의정부를 상상한다면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나?

의정부는 세계적인 힙합그룹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양성하고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에 있었던 8개의 미군부대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들의 선조들이 대한민국 의정부에 근무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훌륭한 관광코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지 않은 문화재 관리를 잘하고 주변 주차시설도 갖추어져서 답사하고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의정부는 휴전선이 가깝고, 경기북부의 전진기지로서 경기북부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이 의정부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정비된다면 좀 더 살만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명수 유물소장자

많은 전쟁유물 수집품들을 소장한 것이 언제부터이고 몇 점이나 되는지?

10여 년 전부터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유물은 확실하게 통계는 못내 봤는데, 500여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많은 유물을 소장하게 된 동기나 계기는?

소요산 입구 오른쪽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있는데, 개관식 때부터 쭉 지켜 봐왔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일단 박물관이든, 기념관이든 봄으로써 느낌이 오고 뭔가 좀 배우고, 애착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는 큰 장비만 있고, 해군 군함 포라든가 군짚차, 해군 포, 비행기 같은 것만 있어요. 실제 실내로 들어가면, 사진만 있고 볼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동두천이 격전지였는데, 그건 아니죠. 이런 건 용산 전쟁박물관에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동두천에는 올해 80대 후반부터 90대 되신 분들이, 미2사단(예전 미7사단) 미군부대 종사하시던 분들이 애장품으로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그 물건을 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육이오 때 미군들이 신던 양말, 면도기, 식판, 파이프, 장갑, 담배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야 돼요. 구입하는 것도 연대가 맞아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구입하는 과정 중에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내가 살려고 점찍어 놨는데, 이미 팔려 나갔을 때, 소장자에게 사정사정해서

'당신은 사가지고 되팔지만, 나는 전시할 사람이다. 내가 웃돈 얹어 드릴 테니까 저에게 양보하시죠.' 하고나서 나중에 유물을 구입하게 될 때죠.

많은 소장품을 갖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글쎄요. 저는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하는데, 그 곳은 겉에서 보면 건물이 큰데, 실제 안에는 활용할 공간,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동두천시하고 별도로 유엔전쟁기념관이라던가 박물관 건물을 지으면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시(市)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소장품 중에 가장 애착을 느끼는 이유가 있나요?

비상식량이 들어있는 씨레이션(C-ration)이죠. 전쟁 중에도 일단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월남 참전용사이다 보니까, 육이오부터 월남전 때까지 계속 먹던 씨레이션이 생각나서 구할려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유물을 수집하다 보니까 비상식량이 빠진 거예요. 한국에 있는 미군부대에서도 먹고 나서 버리니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씨레이션을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캔이 안 나오고, 군인용 시레이션이 봉지로 나온답니다.

중간 도매상한테 전해 듣기로는 월남전이 끝나면서, 모든 물품을 일본이 싹쓸이 수집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월남 전쟁에서 사용하던 한국군 군복, 군번, 총, 씨레이션도 일본에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씨레이션)도 일본에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용으로 식사를 했던 씨레이션(비상식량)을 수집하는데 5년이나 걸렸어



요.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애착이 많이 가요.

통조림 씨레이션 한박스에 12개 들었어요. 야식까지 3일분 4끼 분량입니다. 박스안에는 담배, 껌, 수저, 포크, 성냥, 설탕, 소금, 커피, 코코아가 한 세트(한끼 식량)입니다.

전쟁유물을 수집하면서 보람된 것은?

처음엔 저도 이렇게 많이 수집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옛말에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월남참전 수당하고 연금하고 전부다 들여서 모으다보니 욕심이 생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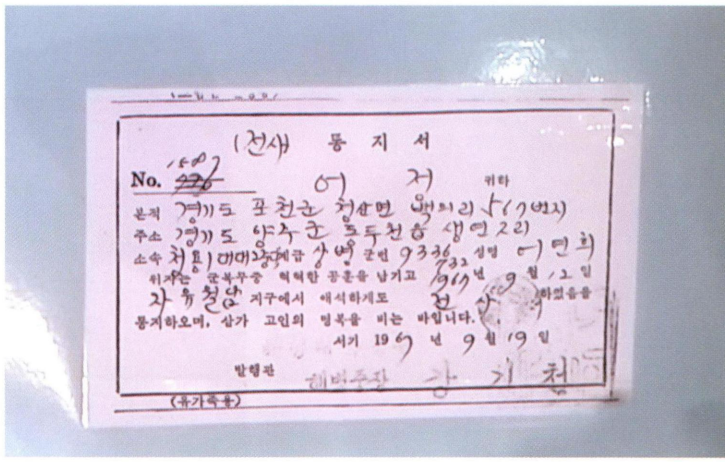
유물 모으는 게 끝이 없더라구요.

씨레이션 캔을 따는 휴대용 캔따개 1개 값이 5만원이에요.

가장 오래된 유물은?

1951년도 한창 전쟁이 발발하던 중에 미군들이 겨울에 사용했던 털장갑인데요, 안에 1951년도라고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군부대 다니던 분의 자제분이 내놓은 장갑이죠.


(전사) 통 지 서

No. 1587

귀하

본적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왕희리 1(1)번지

주소 경기도 양주군 노두천읍 생연 2리

소속 청룡 1대대 3중대 상병 군번 9336 성명 어연희

위자는 군복무중 혁혁한 공훈을 남기고 1967년 9월 12일 자유월남 지구에서 애석하게도 전사하였음을 통지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서기 1967년 9월 19일

발행관 해병중장 강 기 천

(유가족용)

월남 전사통지서(No.1587)을 소장하게 된 이야기는?

제가 연천 청산면 출신이다보니까, 저는 해군출신이고, 어정씨는 해병대 제대하신 분으로 동네 선배입니다. 어정씨 앞으로 온 전사통지서를 선배이다 보니까 저에게 기증하신 거죠. 이것(전사통지서)은 어정씨 동생도 같은 해병대 입대했는데, 월남전에서 전사한 어연희라는 분입니다. 이것은 사본인데 원본은 어정씨가 유품으로 갖고 계시죠.

전사통지서에는 '상병 어연희(군번 9336번)씨가 자유월남(베트남)에 참전해서 군복무중 혁혁한 공훈을 남기고, 1967년도 9월 12일에 전사하셨다'는 전사통지서가 9월 19일에 전달되었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추석날,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들께 제사 지내려고 모여 있는데, 아침에 전사통지서가 전달되었답니다. 그래서 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모두 울음바다가 됐답니다. 어연희씨 보상문제도 직계가 없고, 하다보니까, 당시 21세에 입대한 청년이었는데요.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육이오때 돌아가시고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미래유물전에서 소개하는 기회에 관람객에게 주고픈 메시지는?

사실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쳐들어왔는데요.
관람객들이 지나간 시대에 이와 같은 전쟁이 있었으니 다시는 6 · 25와 같은 전쟁이 나지 말아야 하겠다는, 전쟁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으면 합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전처를 밟게 되잖아요.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죠. 아픈 역사가 되잖아요. 미군들이 쓰던 유물을 보고 뭔가 느꼈으면 합니다.
당시 사용하던 물품을 보면서 피부로 느끼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 더욱 역사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절약하고, 좀 더 강하게 군비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6.25 한국전쟁과 같은 도발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소장품을 동두천에 전시하고자 고집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볼거리가 없어요. 그곳에 전시하리라 목표를 두고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지역은 6.25 격전지고, 삼팔선이 가깝고 한탄강이 가깝다보니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미군 생활용품들, 군장비들을 보면 6 · 25 한국전쟁 참상과 역사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동두천에 이런 전시관이 있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 미래유물전 :
의정부 극복 D.N.A 관람기

윤영옥 (의정부시 금오동 시민)

제1전시장 :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



사뭇 공사장에 들어선 듯 철판과 쇠기둥들이 제1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맞이했다. 가이드북을 받아들고 안내표시에 따라 발굴 현장으로 들어선다.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분단국가에 태어나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에겐 너무도 익숙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온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전쟁과 관련하여 묻어둔 기억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본다.

38선과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서 나고 자라 살고 있는 탓에 전쟁과 분단은 언제나 내 삶의 일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꿈속 가위 눌림의 빈번한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북괴'와 '간첩'. 복권 당첨처럼 허황되게 간첩을 신고할 기회가 내게 오길 간절히 바라던 때도 있

었다. 동네에 나뒹굴던 북한에서 날아온 삐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간첩신고 포상금 대신 경찰서에서 연필과 맞바꾸어지며 아쉬움을 달래줬다. 나중에는 그 연필마저도 주지 않아 삐라는 그냥 종이 쓰레기 취급을 당해야 했다. 한 달에도 서너 번씩 새벽마다 울어대던 군부대 비상 사이렌소리, 비포장 도로를 굉음과 함께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지나가던 탱크와 군용 트럭들, 그리고 장총을 들고 앉아 있던 군인들의 모습이 전쟁 영화와 함께 어린 시절 기억들과 뒤섞인다. 국군장병아저씨들에게 보내던 위문품과 위문편지, 아버지가 군인인 친구들을 따라 구경할 수 있었던 군부대 위문공연, 군부대 담벼락과 아카시 나무, 군인들과 군대용품, 국방색으로 칠이 된 시설물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런가? 전시된 물품들이 6.25 전쟁 중 사용된 군용 물품이라는데 마치 주위에서 흔히 접하던 일상의 물건들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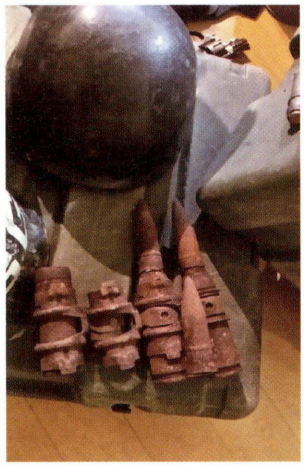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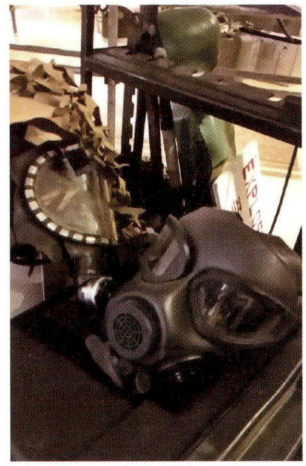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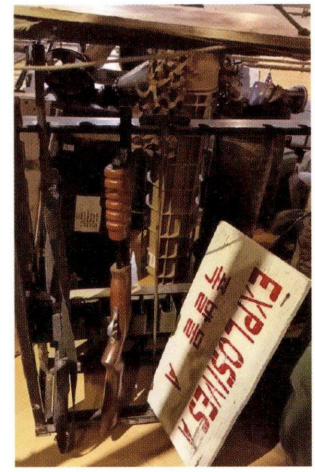
지표면에서 1m 이상 높이의 강철구조물은 튼튼해 보이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내겐 살짝 불안감을 주었다. 음침한 조명, 흔들리는 것만 같은 철 구조물 위에서 난간을 잡고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관통해온 유물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유심히 살펴본다.

찌그러지고 녹슨 포탄과 철모,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총알과 포탄, 이름표가 달린 군복과 모자, 낡은 타자기와 통신장비들, 폴라로이드 글씨가 선명한 카메라, 야전침대와 의약품들, 담배와 지포라이터와 오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라 해도 무관해 보이는 다양한 군대 용품들이 6.25전쟁 당시 사용하던 것들이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앙증맞은 노란색 안장, 지금 사용해도 손색없을 것 같은 예쁜 자전거에 올라타 보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장난감 자동차, 나무로 만들어진 모형. 그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군번줄이다. 군인의 신분증과 같은 것으로 2개가 한 쌍이다.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군번, 소속, 이름, 혈액형이 새겨져 있다.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신분을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군번줄이 두 개인 이유는 전시에 있다. 6.25 전쟁 중에는 사망자를 이송하기 어려워 하나는 이에 박고, 나머지 하나는 수거해 가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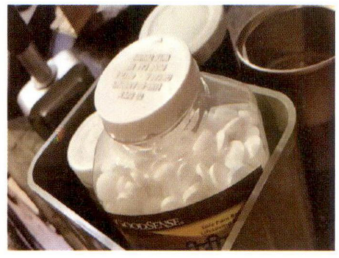
EXPLOSIVE CLASS 폭발물. 녹슨 철모와 포탄, 방독면, 권총, 장총, 랜턴 등 위험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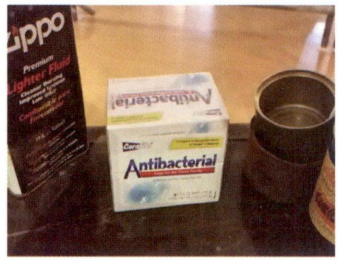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많은 총알자국(?)이 선명한 모형물로 용도가 몹시 궁금하다. 전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기일 것이다. 지키기 위해 공격하고, 내가 살기 위해 적을 죽여야 하는 것이 전쟁이라 한다. 사용되었음직한 찌그러지고 녹슨 포탄들, 사용되어지지 않은 총알들, 그것들의 위험에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철모. 이곳에 놓인 철모의 주인들이 포화 속에서도 모두 무사했기를...

미군부대 행정실의 모습일까?

철제 캐비넷, 철제 금고, 라디오, 망원경, 카메라, 전화기, 안내방송용 마이크, 아스피린과 상비의약품들, 라이터와 지포 오일, 넘버링기계 까지... 얼굴이 길쭉한 사내가 담배를 입에 물고 국방색 책상위에서 타다닥~ 타다닥 타다닥닥, 드르륵. 박자감 있게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군인들이 사용하였던 식기류. 물통, 식판, 컵, 버너, 청소용품, 랜턴, 스테인리스 식기류와 주전자.

캠핑장비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만 같은 질 좋은 스테인리스 식기류를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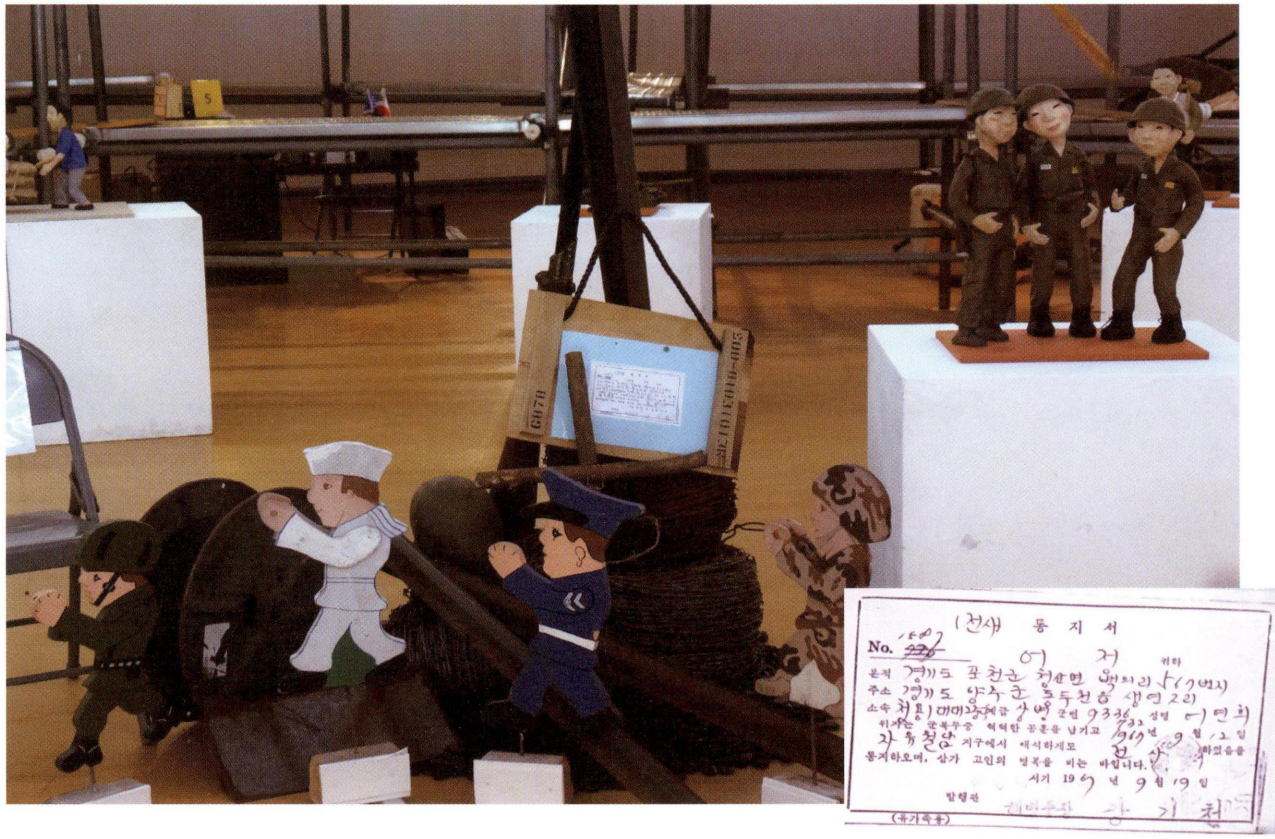
주전자에 붙어 있는 '메이디 인 러시아' 스티커는 세월의 흔적을 비껴간 듯 너무도 선명하다.



6.25 전쟁은 1950년 여름에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조인 될 때까지 겨울을 두 번이나 넘겼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린 겨울은 총구를 겨누는 적에 못지 않은 복병이었다 한다.

야전 침대와 군복, 방한용 장갑과 모자, 갓 빨아서 널어놓은 것만 같은 양말, 한 때는 멋진 남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담배. 두 개 한 쌍으로 있어야 할 군번줄은 왜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 해군 일반 사병 복장인 하얀 모자에 남색 동정복과 함께 명찰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주월해군백구부대 이명수 씨의 군복임을 선명하게 알려준다.



미장센 기억 또는 추억

의정부문화원 닥종이인형동아리의 작품과 전사 통지서

전사통지서

어정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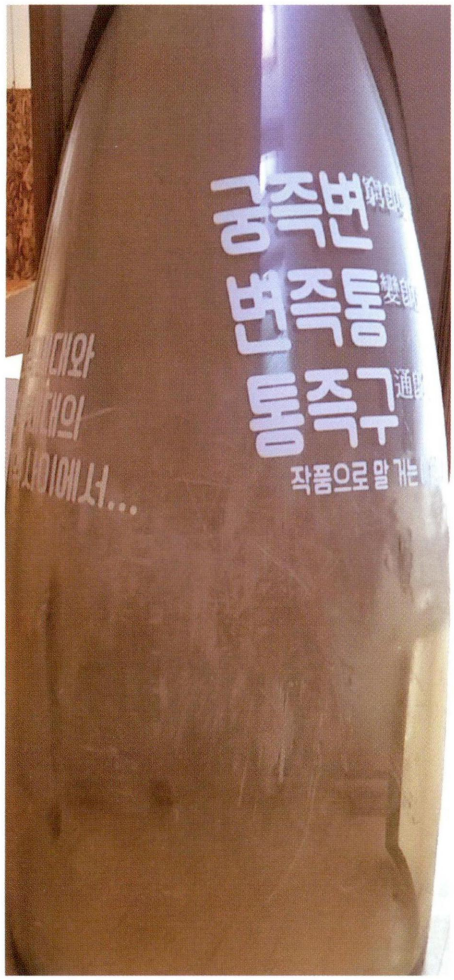
본적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백의리 567번지
주소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2리
소속 청용 1대대2중대 계급 상병 군번 9336 성명 어연희

위 자는 군복무중 혁혁한 공훈을 남기고 1967년 9월 12일
자유월남 지구에서 애석하게도 전사하였음을 통지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1967년 9월 19일

발행관 해병중장 강 기 천

제2전시장 ;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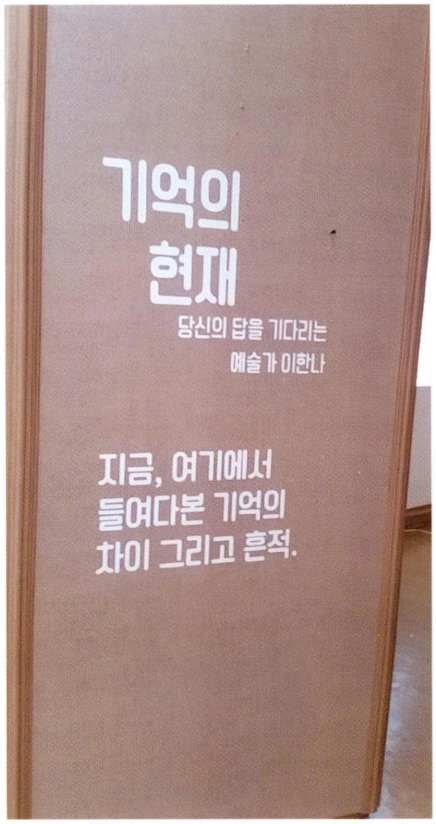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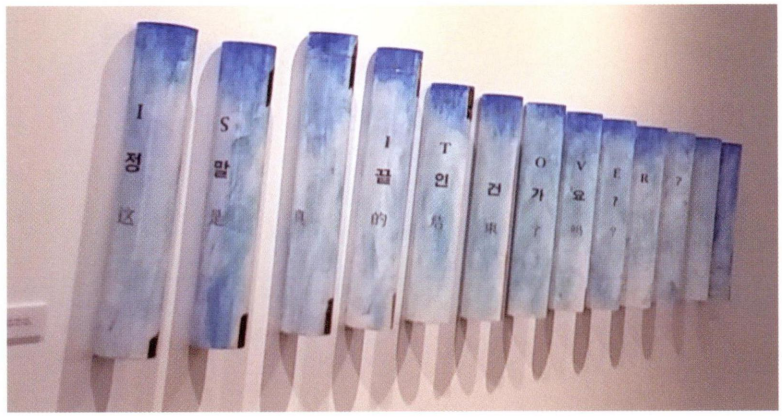
작가는 관객에게 작품으로 말을 걸고 싶다고 하였다. 썰렁한 전시장에 "초코렛을 뽑아 먹어 보세요~!" 초코렛 머신이 나를 유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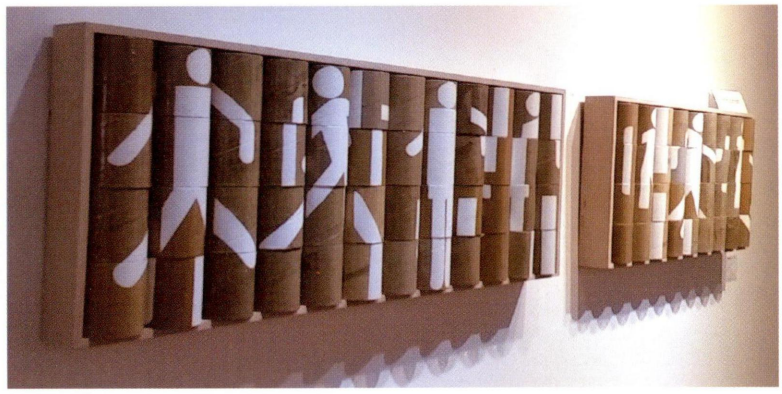
"기브미 초코렛"을 외치며 미군 지프차를 따라간 소년이 원하던 초코렛을 얻어 친구들 앞에서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초코렛을 먹던 모습이 불쑥 기억 저편에서 튀어 나왔다. 부러움 반 부끄러움 반의 마음으로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소녀가 오버랩 된다. "기브미 초코렛"을 입밖으로 꺼내보지 못했지만 결국 한 번은 초코렛을 얻어 먹었다. 개울가에서 미군을 만났고, 힐끔 보았더니 초코렛을 내밀었다. 선듯 받지 않고 쳐다보니 웃으면서 초코렛을 흔든다. 부끄러웠지만 초코렛은 달콤했다. 소녀의 눈빛이 간절했을까? 소녀가 되어 '기브미 초코렛' 기계를 돌렸다. 여전히 초코렛은 달콤하다. 이젠 그 누구도 '초코렛' 따위에 간절함을 담지는 않는다. 무엇이 미래 세대에 유물이 되어 아련한 추억이 될까? 혹, 빈 타임캡슐. 넘침을 경계하는 요즈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번쩍거리는 불빛, 천장에 빼곡히 매달린 꽃. 이곳은 전쟁의 공포와 이후 찾아온 평화를 간접 체험토록 기획된 공간이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지만 무엇인가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면, 혹, '전쟁(?)' 아닌가 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의정부시민들은 북한산의 넉넉한 품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눈꽃까지 지천으로 널린 꽃들에게서 치유의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새롭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제3전시장 : 기억의 현재


기억의
현재
당신의 답을 기다리는
예술가 이한나
지금, 여기에서
들여다본 기억의
차이 그리고 흔적.


I 정
S 말
I 끝
T 인
O 가
V 요
E
R





탈출 없는 출구(VIDEO WORK)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던 2000년도만 해도 곧 통일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었다.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되고, 개성 공단 폐쇄 결정이 내려지며 남북 화해의 노력과 움직임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경원선을 타고 철도중단역인 신탄리역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푯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통일의 날이 오면 경원선을 타고 중국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원대한 여행계획을 잡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분단국가. 분단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북한은 핵개발과 끊임없는 도발로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세력도 있다. 화해의 노력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간다. 국민의 목에 핵전쟁이라는 공포를 씌워 겁박한다. 양치기소년처럼. 이러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도 꿈쩍하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무시하게 되지는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마음대로 어찌 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다자간 협정,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포탄을 쏘지는 않고 있기에 전쟁이 비상구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같은데 여전히 출구를 향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주문한다.

작가가 시키는 대로 지관을 돌려 보았다. 머리, 몸통, 팔, 다리 따로따로 찢기는 고통, 전쟁의 상처는 남, 북 각자의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사람들,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2017 미래유물전_의정부편 : 극복 D.N.A
홍보물 디자인 컨셉

〈미래유물전2017_의정부편〉을 설명하는 지표로 '극복 D.N.A'라는 제시어가 있듯이 이 전시의 의도를 담은 시각적 지표, 전단지, 초대장, 포스터, 현수막, 전시 가이드 북 등의 홍보물 디자인이 필요했다.

〈미래유물전2017_의정부편: 극복 D.N.A〉에서 추출한 컨셉 키워드는 '극복', 경험치와 상황인식이 다른 '두 세대' 그리고 '전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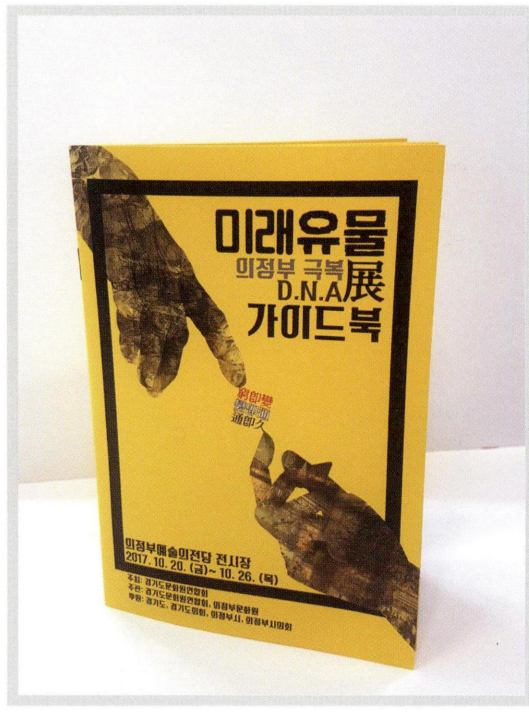
'전달' 특히 D.N.A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자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은 시각적 표현을 고민하다가 미켈란젤로의 작품 '천지 창조'를 떠올렸고, 천지 창조에서 하느님과 아담의 손 부분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천지 창조에서 생명을 불어 넣는 하나님의 검지와 맞닿은 이제 막 생명을 전달받는 아담의 검지 부분에 필요한 두 개의 손에서 하나님의 검지에 해당하는 세월을 담은 주름진 노인의 손과 아담의 검지에 해당하는 21세기 미래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로봇의 손을 선택했다.

포스터



가이드북(16p)



노인의 손을 화면 좌측 위에, 로봇의 손은 우측 아래로 배치하여 시간의 흐름, 순리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노인의 손 위에는 6.25 당시 기록 사진들 가운데 인물 위주로, 로봇의 손 위에는 의정부의 발전상을 담은 풍경 사진들 위주로 중첩시켜 두 손의 차이와 정체성을 부여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미래유물2017_의정부편: 극복 D.N.A〉는 결국 변화의 원동력인 궁핍한 환경, 그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변화 즉,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의 한자 메시지를 두 손 사이에 배치하여 '극복 D.N.A'의 극복을 이루는 지혜를 형상화 하였다.

그리고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한자 메시지에 우리 나라 태극기에서 찾을 수 있는 빨강, 파랑, 흰색의 색상으로 표현하여, 여전하게 휴전 중인 우리 나라의 상태, 남과 북의 대치, 그러나 백의 민족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마음에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의미 부여를 하고 누군가는 읽어 내기를 바라며 다양한 홍보 매체 곳곳에 살짝 얹어 놓았다.

기본 아이템인 두 손은 다양한 홍보물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조금씩 다르게 화면을 구성하는데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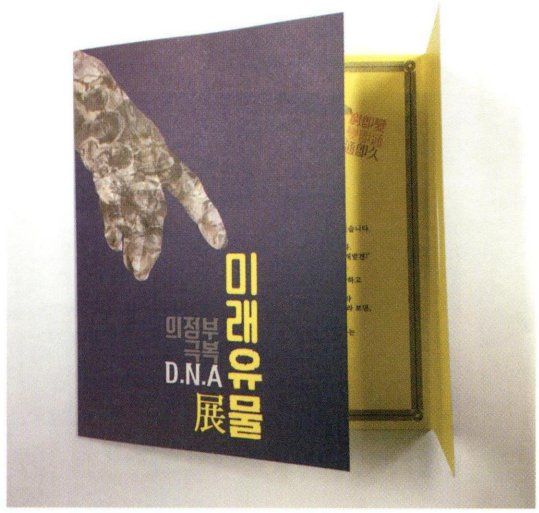
또, 전시에 대한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 인쇄물의 주조색은 노란색으로 선택했고, 강조색으로는 검은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파란색 계열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전단지





초대장





현수막(전시장 외벽 현수막)



현수막(컷팅식, 행정게첨대)





사진으로 보는 미래유물전







전시준비





전시준비


미래유물
D.N.A
展
10. 20.
10. 26.
Part I
Part II
Part III
종연실


미래유물
D.N.A
展
10. 20.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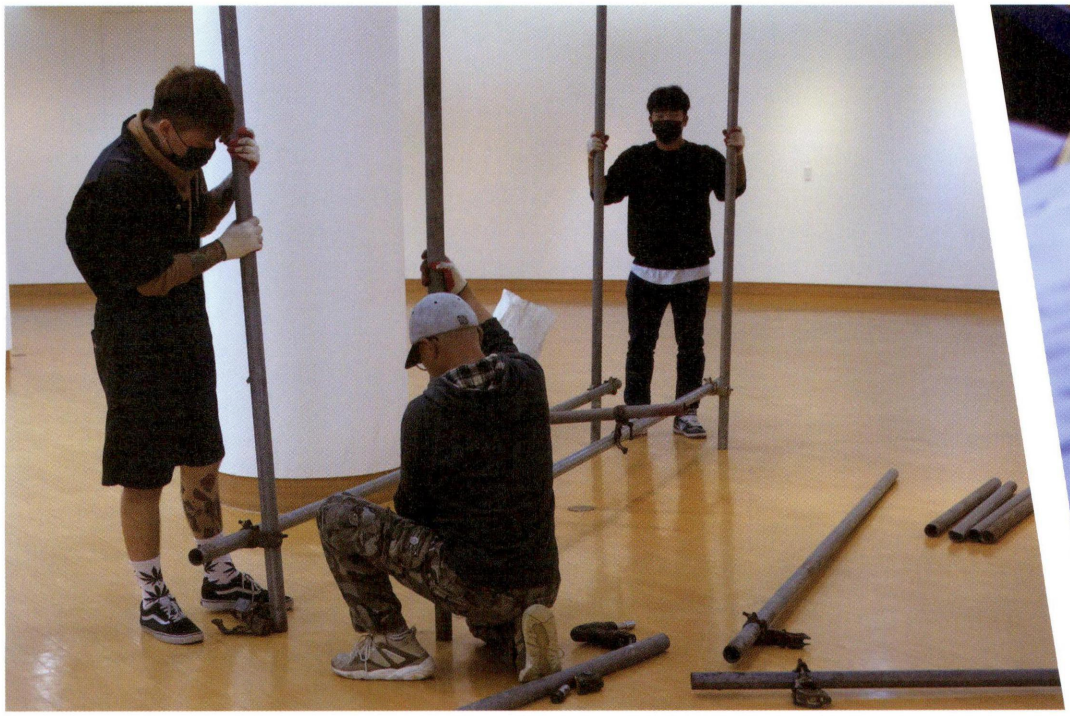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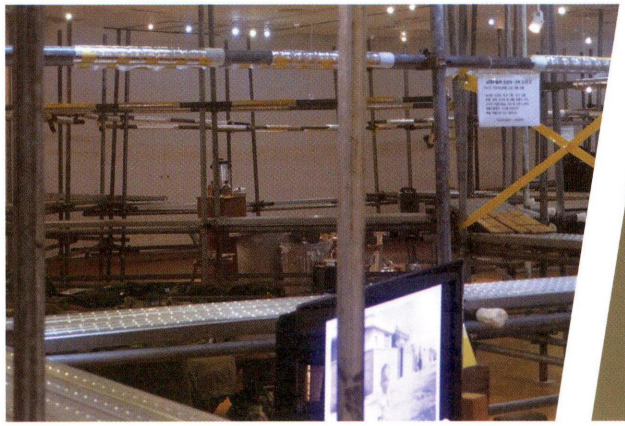
전시준비




Part I: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
Part II: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Part III: 기억의 현재
미래유물
극복
D.N.A
展
10. 20.
10. 26.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오픈식 2017. 10. 20. (금)
오후 3시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정부문화원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전시준비 및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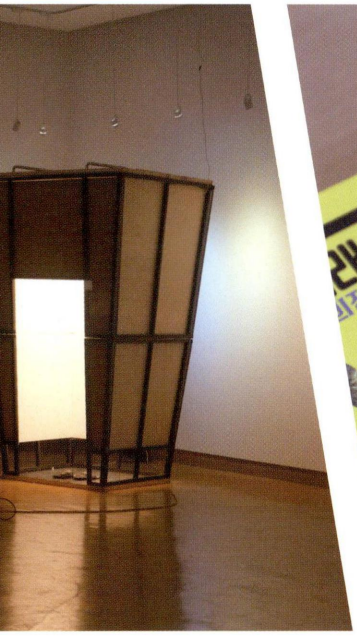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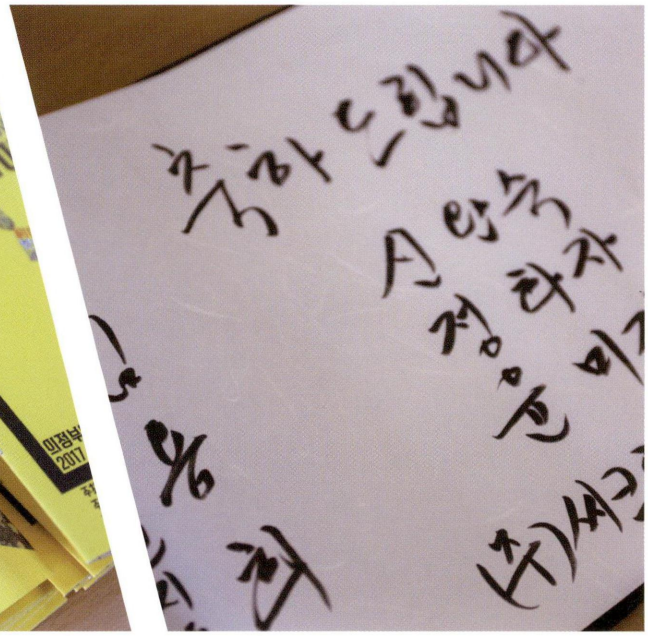









미래유물展
D.N.A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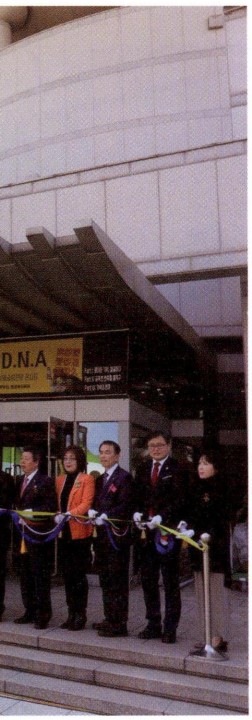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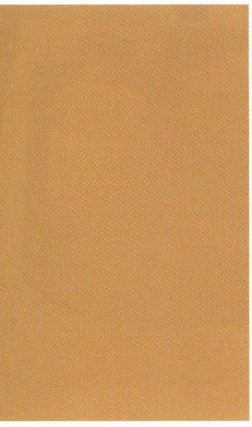
기념식






D.N.A


미래유물展_의정부, 극복 D.
2017. 10. 20. ~ 10. 26.
오픈식 2017. 10. 20. (금) 오후 3시
전 시 장
전시장
자리 유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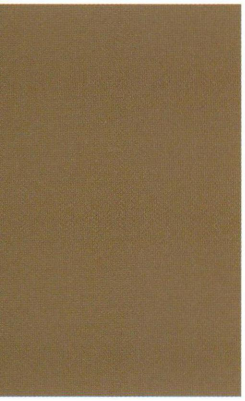


기념식


미래유물展_의정부, 극복 D.N.A
2017. 10. 20. ~ 10. 26.
오픈식 2017. 10. 20. (금) 오후 3시
장소: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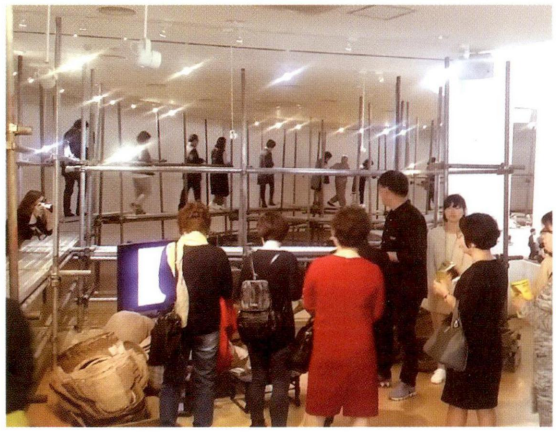



미래유물展_의정부, 극복 D.N.A
2017. 10. 20. ~ 10. 26.
오픈식 2017. 10. 20 (금) 오후 3시
장소: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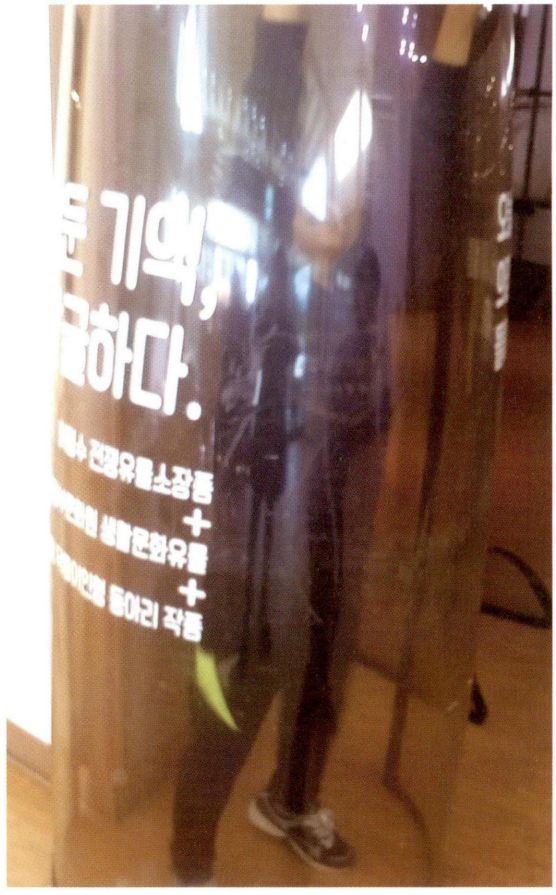

미래유물展
2017. 10. 20. ~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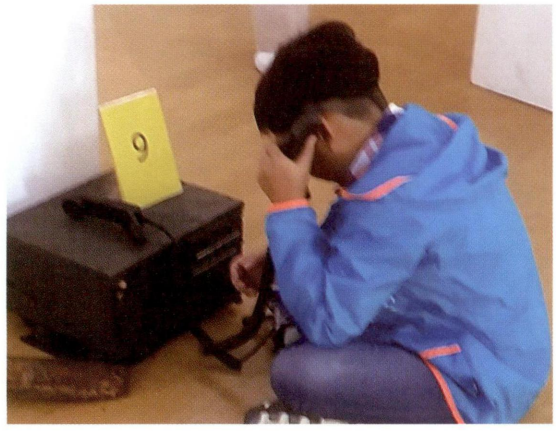





기억,
하다.
+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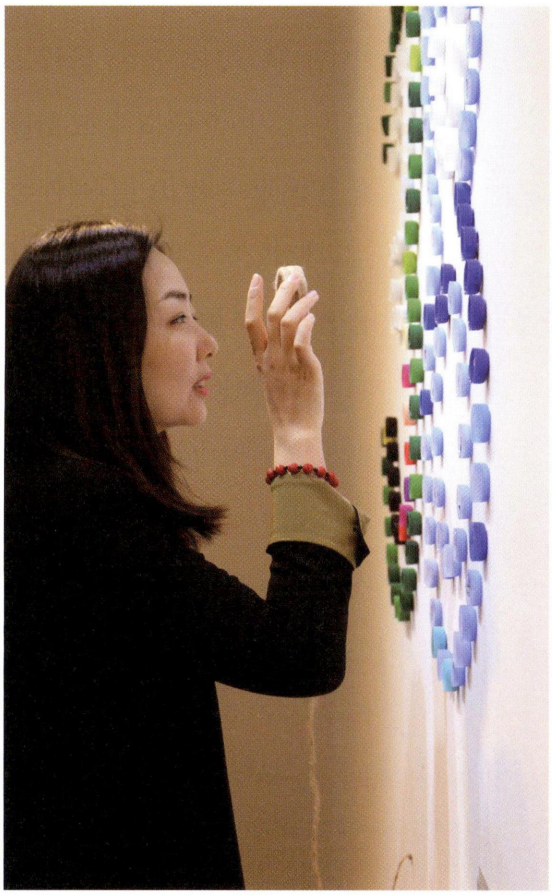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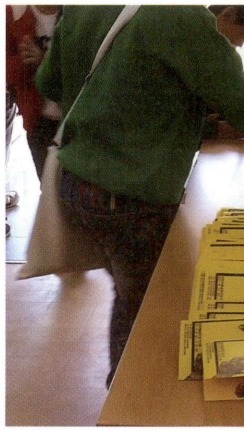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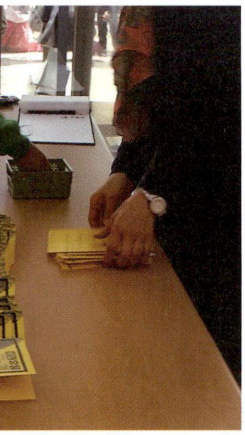


























미래유물전2017_의정부편: 극복 D.N.A를 마치며.....

전시기획 이 소 연

〈미래유물전2017_의정부편: 극복 D.N.A〉 전시를 시작하면서 의정부의 미래 유물, '극복 D.N.A'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하면서 이 전시를 총괄했다. 아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정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인터뷰했고, 작가들과 작품 제작의 방향을 토론했다.

의정부의 미래 유물로서 '극복 D.N.A'라는 가설을 풀어내기 위해 '공간으로서의 의정부'를 '장소로서의 의정부'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지리학자 이 푸 투안 Yi-Fu Tuan이 주장한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조건, '인간 관계 형성의 유무'와 영국의 지리학자 마이크 크랭 Mike Crang이 주장한 공간에서 장소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의 더께'를 다룰 필요가 있었다.

의정부와 관계 맺기를 한 사람들, 의정부에 쌓인 시간의 더께를 다루면 '의정부'와 '의정부 사람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체성을 부각시키면 '극복'이란 정체성을 가진 의정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며, 그 '극복'은 정보화 되어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 줄 만한 의정부의 유산(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세대에서세대로물려주는세포안에새겨진'극복'이라는 정보가 의정부의 미래 유산 혹은 유물이다.'라는 의정부 미래 유물의 가설이 되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6 · 25 전후 의정부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 그 시간의 더께를 '전쟁 유물'로 제안한 [Part I: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가 의정부예술의전당 원형 전시장에, 비극적 경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6 · 25라는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서 '극복'

을 이루어 낸 '도전자'로 변화하여 두 세대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지혜를 발견 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Part II: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현재에 소환된 '건강한 기억'이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기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만든 [Part III: 기억의 현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유물전2017_의정부편: 극복 D.N.A〉가 '의정부'라는 장소에서 '극복'이라는 무형의 문화적 자산이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의 지혜와 현재에 소환된 건강한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유물'이라는 유형의 실체와 결합하여 '의정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그 선상에서 마치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 '레展드'를 만들어 낸 그들처럼 상상력을 발휘하여 독특한 문화 유물을 만들어내는 적극적 주체로서, '의정부 사람', '의정부 산産'에 대한 자부심과 의정부 소속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출발 지점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미래유물전2017_의정부편〉은 기획자로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부의 미래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주제 선정에 이어 그 유물의 가치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의 장치와 아이디어를 고안해 보았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문화적 해석'과 '시간' 그리고 '예산'이라는 한계는 모든 기획자들에게 '멈추기'와 '선택'을 강요하듯이 이 번의 전시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매 번 전시가 끝나면 통과의례처럼 느끼는, 훌륭한 주제를 모두 소화해내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되었다는 안타까움과 자책의 기억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꺼내 보기로 하고 이제 기억 창고의 빗장을 건다……

미래유물展
의정부 극복 D.N.A

발 행 일 2017년 12월

발 행 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 행 인 염상덕

주　　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의정부문화원

기　　획 ㈜소라게

후　　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　　화 031-239-1020

팩　　스 031-239-3785

본 자료집은 2017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미래유물

의정부 극복 D.N.A 展